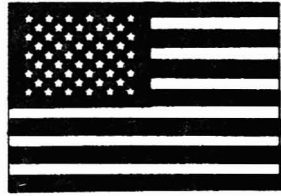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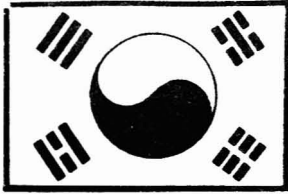


FEB·MAR 1983 Vol. 12 No.2 Published by the Seattle-Washington Korean Association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Paul H. Shin Publisher
Kun H. Park Editor
Phone: (206)362 - 4500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 ※ 독립선언문 (한글)
- ※ 삼일절 행사
- ※ 한인회 활동
- ※ 교민사회 동정
- ※ 시 수상 논단
- ※ 영문 페이지

2·3
Feb·Mar

고향에서 옮겨온 맛



한국의 정취를 살리어
아담하게 단장된
한국식당

한일각

대표 신 응 호

409 Maynard Ave. So.,
Seattle, WA 98104
(206) 587 - 0464 · 0465



과거를 버리지 말자

년전 TV 에 방영된 Roots 「뿌리」 라는 영화는 미국 뿐만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준 걸작이었다. 이 영화는 150년전 아프리카에서 백인에게 짐승처럼 잡혀 미국에 노예로 끌려온 한 젊은 흑인의 몸부림치는 생애와 그로부터 6대에 걸쳐 이어지는 박해받는 흑인들의 처절한 수난사를 그린 것이었다. 이 영화가 충격을 주었던것은 오늘날 모든 나라에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권의 천국" 미국에도 과거에 이처럼 잔혹한 야만의 역사가 숨어있었다는 사실을 들어내준 데 있었다고 생각된다. 많은 미국인들, 특히 젊은 세대의 백인들은 이 영화를 보고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수치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충격이 이 영화가 뜻하는 전부는 아니었다. 이 작품의 원작인 알렉스 헤일리 (그는 실제 인물이었던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그 젊은 노예 쿤타 키테의 7대손이라 했다.)는 Roots 의 충격파가 아직도 거세게 감돌고 있을 때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술회했다. "나는 비참했던 흑인들의 과거를 폭로하려는 목적으로만 이 작품을 쓴것은 아닙니다. 과거를 더듬어 나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은 충동에서 쓰기 시작했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은 우리 후손에게 면면이 이어온 우리 자신의 과거를 후손들에게 알려 주어야한다는 절실한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있었읍니다." 헤일리의 이말은 서로 맥락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 이민세대에게 좋은 경구가 될수 있을것같다.

x x x

오늘의 문명세계는 어쩌면 단절의 위기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특히 오늘날의 우리 이민사회를 도리켜볼때 비좁은 인간관계에 얽매어 과거를 망각한채 숨가쁘게 오늘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 대부분 우리들의 가족 생활은 부모와 자식 즉 1세대와 2세대의 핵가족의 틀속에 갇혀있다. 한때는 진보된 사회구조의 씬볼인것처럼 보였던 핵가족 제도는 우리자식세대에게 할아버지의 세계를 배울수 있는 맥을 끈어 버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의 자식세대는 할아버지란 친근감도 가족으로서의 실감도 없는 마음속에서 멀리떨어져있는 존재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은 할아버지로 상징되는 우리 자신의 과거에 대한 무지를 남게 할수밖에 없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릎에 앉고 옛날 얘기를 들려주는 정경을 단순한 향수적인 감상이 아닌 과거와 미래의 연결로 생각할때 오늘날 우리들의 세대는 그만큼 단절된 평면적 시간속에서 숨가쁜 이민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아무리 생활에 지쳐있어도 우리의 과거에 대한 진가를 이따금씩이라도 찾아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될것 같다. 우리들의 2세에게 모국어 가르치고 부모와 조부모들이 지난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가를 가르쳐주려는 관심이 바로 이런 노력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미국에 살고있으니 한글 따위는 필요없고 "순 미국 식으로" 살게 만들어야 한다는 관념에 따라 교육을 받고 자란 후세들은 나중에 가서 결국 꿈어 버릴수 없는 자신의 뿌리를 인식하고 과거를 더듬어 보려할때 감당해야할 시간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것인가? 오늘 우리 이민세대가 겪는 허다한 2세대 육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어 나아가야 하는냐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같은 과거와 미래의 연관성을 되찾아 보려는 태도가 앞서야 할것이라고 느낀다. 낯선 문화 풍속속에서 새고 또 사회를 건설하는 이민 1세대들에게 이런 역사적 감각이 얼마나 강안가에 따라 우리 미래의 방향이 좌우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KP)

특립 선언문 (한글)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사람이 자주하는 국민인 것을 선언 하노라. 이것으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주어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써 자손만대에 있어서 계세가 스스로 존제하는 마땅한 권리를 얻으리니 누르도록 하노라.

만민은 여사의 권위를 의지하고 이것을 선언하는 터이며, 2천만 민중의 중심을 모아 이것을 선언하는 터이며, 세계의 만민은 자유평등을 위하여 이것을 주장하는 터이며, 사람됨 양심의 밝기로 말미암은 세계 개조의 큰 기운에 순응해 나가기 위하여 이것을 드러내는 터이니, 이는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산아관 권리의 정당한 행동이므로, 하늘 아래고 무엇도 이것을 막고 누르지 못할 것이다. 남은 시대의 유일한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물 당하여, 역사적인 여러 천년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려 고통을 겪은 지 이제 십년이 되었다. 우리가 생존하며 배양된 것이 무엇이든, 정신의 발전이 지장을 입은 일이 무엇 없으며, 세계의 존엄성이 손상된 일이 무엇 없으며, 세롭고 남카로운 기백과 독창성을 가지고 세계문화의 큰 물결에 이바지할 기회를 잃은 일이 무엇 없마는가! 오호, 예로부터의 억울함을 풀어보면, 지금의 괴로움을 풀어내려면, 앞으로의 두려움을 없이 하려면, 현재의 양심과 나라의 도의를 지켜야 하며, 사담마다 제 인격을 잃게 가지어 나가려면, 불쌍한 아들 딸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자자손손이 길이 안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려면, 우선 국민이 세계의 독립인 것을 뚜렷하게 하려는 것이다. 2천만 개자가 사담마다 마음속의 관념을 풀으니, 인류의 중흥된 성품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가 되고, 인문과 도덕이 무기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는 오늘, 우리가 나아가 이것을 얻고자 하는데 어떤 인민을 택지 못하며, 물러서 계획을 세우는데 무슨 뜻인들 꺼지 못할까! 범자수로 조약이후 시시때때로 군계 맺은 약속을 저버렸다하여 일본의 신의없음을 한탄하지 아니하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인은 신생활에서, 우리 조상때부터 불려받은 이 억권을 식민지로 삼고, 우리 문화민족을 마치 미개한 사람처럼 대하여 한강 경복자의 쾌감을 함녕분이요, 우리의 영구한 사회의 기틀과, 뛰어난 기계의 마음과 감을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총지 못함을 책망하며 하지 아니하노라. 차기를 일깨우기에 다급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여 가를 가지도 못하였느니라. 현재를 준비하기에 바쁜 우리에게는 에부터의 잘못을 따져볼 겨를도 없노라.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다만 나라를 바로 잡는데 있을뿐, 결코 남을 헐뜯는데 있지 아니하도다. 영속한 양심의 명명을 따라 자기집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는 일인뿐, 결코 막은 원한과 일시의 감정을 가지고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일이 아니도다. 남은 사상과 남은 세력에 얽매어 있는, 메인 일본의 외적자의 중명심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이 고된 현실을 고쳐서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더불어아가게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이 세계가 원해서된일이 아닌 두 나라의 합법의 결과는 마침내 억압으로 이뤄진 단장의 편안함과, 차별에서 오는 고드 치 못함과 거짓된 봉계 숫자 때문에, 이해가 서로 엇갈린 두 민족 사이에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도량이 남이 관수득 고이 때는 지금까지의 사정을 살펴보자. 응감하게 예상 못할 고쳐잡고, 참된 이해와 동정에 바탕한 우호적인 세 시대를 마련하는 것이 서로 화를 멀리하고 복을 멀리하는 가까운 길인 것일뿐, 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또한 일본과 원한이 쌓이고 쌓인 2천만 국민을, 힘으로 붙잡아 묶어놓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는 노릇이 아닐뿐 아니라, 이것이 동양의 평안함과 외해함을 좌우하는 4억 중국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새삼을 관수득 권어지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 전체가 함께 쓰러져 망하는 비운을 초래할 것이 뻔한터에, 오늘 우리의 조선 독립은 조선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과 번영을 이루어 주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잠복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버리고 나팔이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미치지 못할 불안과 공포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의 평화와 중요한 임부가 되는 세계 평화와 인류복지에 꼭 있어야 할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쩌구 할관정상의 문제이겠느냐!

아아, 새 하늘과 땅이 눈앞에 펼쳐지구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구나. 지나간 세기를 통하여 짝고 다투어 깨어난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서 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 위에 던지기 시작하구나. 세상이 온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저축하구나. 얼음과 산은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거니 저 한때의 시대였다면, 온화한 바람, 따뜻한 햇볕이 서로 뽐하는 세계가 다시 움켜잡는 것은 이 한때의 시세이니, 하늘과 땅에 새 기운이 되돌아오는 이 마다에 세계의 변하는 물결을 하는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고 아무 거기할 것도 없다.

우리가 본시 하고 난 자유권을 지켜 몸성환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던 것이며, 우리가 닦아낸 지닌 바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이 가득한 온 누리에 거백의 띠어남을 꽃피우리라. 우리는 그 때서 본받자는 바이라.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전진하나니, 남자. 여자, 어린. 아이 할것없이 음진한 옛집에서 힘차게 떠나와 산라만산과 더불어 줄거은 부활을 이룩하게 되구나. 천만세 조상들의 빛이 우리를 안으로 치켜고 전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으로 보호하나니, 밑에 손을 대면 큰 성공을 이룩할것이라. 다만 저만의 빛을 따라 전진할때를 이룬다.

공약 삼장

- (하나) 오늘 우리의 이거사는 정의.인도.생존.번영을 찾는 거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관점으로 치닫지 않자.
- (하나) 마지막 한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 (하나)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해도가 어디까지나 공명 정당하게 하라.

나라를 세운지 사천이백오십이년이 되는 해 삼월 초하루

(조선 민족 대표)

은 범회 길 선주 이 필수 백용성 김 안규 김 병조 김 상준 김 동진 권 병덕 나 용환
 나 인형 양 진배 양 한묵 유 여대 이 광성 이 명룡 이 승훈 이 종훈 이 종인 임 예환
 박 준승 박 희도 박 동안 신용삼 신석구 오 세창 오 화영 권운수 최 성모 최 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 장 여 행사
- 국제 국내 항공권 취급
- 재정 보증서 작성
- 이민상담
- 항공화물 취급

523-7057

10212 5th Ave. N.E. #220 SEATTLE .WA 98125

『삼일절 기념행사에
즈음해서』



기미 독립운동의 참모과 선열들의 얼을 후손들에게 보전하고자 박스신 중에도 불구하고 3.1절 기념행사를 위하여 많은 고모어 여러분들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년 3월이 오면 온 겨레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일제 역정에 항거하여 우리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던 함성이 들려오는 듯 합니다. 온 겨레가 방방곳곳에서 손에는 애국기를 흔들며 조국을 찾기의 학이 총칼앞에 굴하지 않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간 거룩한 선열들의 혼은 이 세상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줄 믿습니다. 「기미년 3월 1일 경오오, 어지자 밀물같은 대한독립만세, 애국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라고 노래를 부를 때 내마음속에 무엇이 마음속에서와 닿는 듯한 감정에 마음 돌바들 몰랐습니다.

함으로 거룩한 날이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3.1절 정신을 받들어 굳게 단결하여 이 지역 한인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한인들이 이민생활에 제각기 바쁘게 생활하고 있지만 뜻만 있으면 우리 선열들이 합심하여 독립운동을 일으켰듯이 이고장 한인교도들도 단합한 하면 서로 잘살수가 있구나 하는 희망찬 내일을 여의히 볼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선열들의 숭고한 지혜와 용기, 그리고 순수했던 뜻과, 몸쳐서 하나가 되어야 큰일을 발휘할수 있다는 정신과 행동을 다시는 받고 만들어서 우리 이곳 세대를 한인사회도 한인회를 중심으로 상호협력하여 조용하고 실속있는 한인사회건설에 이바지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힘쓰는데 뜻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행사당일 몇몇 인사들의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으나 이것은 한인회의 발전을 위한것으로 믿고 싶으며, 한가지 아쉬웠다면 그날의 행사의 의외뜻있는 체 임시총회중 몇분이 초반을 피었던일은 많이 참석하신 우리들의 처. 자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는지 대답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젊은 우리세대가 모두 서로 반성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인회라는 것은 봉사단체도 실권도, 금권도없는 오직 고민을 위한 일들 뿐인데 확의 진행방법등을 무시하고 개인감정을 앞세운만한 일들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작은 감정들을 버리고 모두 영합하여 합심할때 우리에게 오는것은 오직 무한한 힘일것입니다. 우리끼리의 집안 싸움이나 감정은 모두 버리고 다른민족에게 지지않게 작은 힘이라도 합하여 잘살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곳 초대한인회장 이시던고 이 창희 선생님의 생전시와 같이 모든 고모들이 서로가 신뢰하고 확고하게 지내는 한인사회가 되도록 "참여" "단합" "사랑" 하여 우리의 슬기와 긍지를 자랑할수 있는 변영되고, 명망한 한인사회를 만들시다.

끝으로 기념행사 수일전 부터 한인회 기금을 위하여 자비로 재료를 구입하시고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를 해주므로 그날을 더욱 빛내게 해주신 임직원 부인, 그리고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모여러분 한가정 한가정에 안녕과 번영과 기쁨이 항상 넘치시기를 기원하며 삼가 순국선열의 명복을 빕니다.

서기 1983년 3월 1일

씨애틀-와싱톤주 한인회 이사장 이 동 립

삼일절 행사를 마치고

감사의 말씀

지난 2월 26일 3.1절 기념식날 한인회 기금모금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하루종일 수고 해주신 다음 회장단, 이사, 임원및 회원 부인들께 한인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사, 임원 부인들께서는 자진하여 각자 부담으로 음식자료를 준비했고 손수 김밥을 만들어 음표수와 함께 3.1절 행사에 참석자들에게 판아 그 수입을 한인회에 기증하기도 함으로서 출진수밖하는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수고 해주신 분들 (가나다순)

Mrs. 김 병 국	Mrs. 김 영 삼	Mrs. 곽 중 세
Mrs. 박 봉 수	Mrs. 배 동 환	Mrs. 임 도 승
Mrs. 오 계 희	Mrs. 이 동 립	Mrs. 이 상 주
Mrs. 이 현 진	Mrs. 이 신 남	Mrs. 이 종 원
Mrs. 신 호 범	Mrs. 손 옥 봉	Mrs. 조 성 욱
Mrs. 장 부 관	Mrs. 조 병 규	Mrs. 한 만 섭
Mrs. 예식 스미스		

다시한번 위의 분들의 노고에 처하와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983년 2월 27일

회장 신 호 범
이사장 이 동 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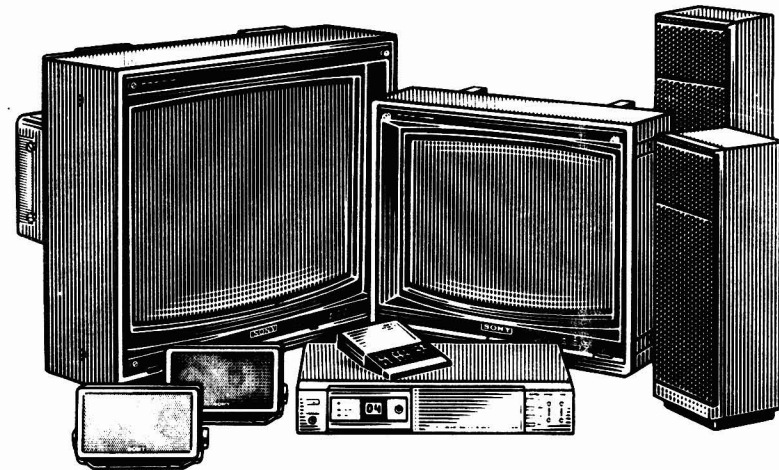
3·1절 행사에서 모금을 위하여 임원, 이사, 회원 부인들이 손수음식을 준비하는 광경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움시다

아폴로 TV & STEREO

YOU'RE LOOKING AT THE FUTURE OF TELE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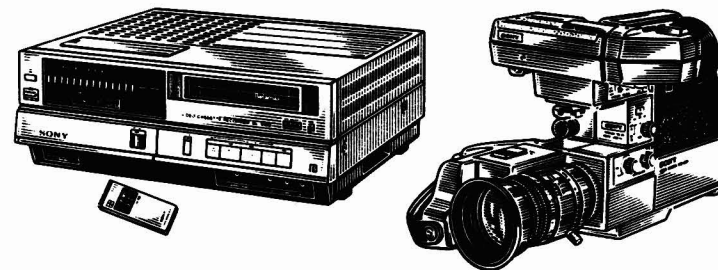
SONY



- 테레비 & 모니터
- 비데오 & 카메라
- 전축 · 카세트 판매

- 한국 비데오 테이프 대여
- 한국에서 직접수입한 가장 선명한 화면 Beta, VHS.
- 3\$ (회원비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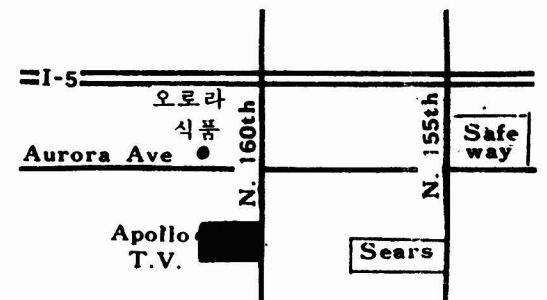
T.V. 모니터에 관한문의 환영



영업시간 : 아침 10시~저녁8시
일요일은 오후2시부터

주 소 : 916 N. 160th St.
Seattle, WA 98133

전 화 : 546-4222(씨애틀)
531-6370(타코마)



SONY

AUTHORIZED DEALER



이동립이사장



손옥봉 부이사장



신호범이사



오계희이사



곽종세이사



장부관이사



전영환이사



문군성이사

『한인회 활동』

회장단 . 이사장 . 임원 시애틀시장및 경찰국장 방문

●시애틀시도 4월 23일을 "한국의날"로 선포

신:호범 회장, 이동립 이사장, 오 계희 부회장, 곽 종세부회장이 현지 한인회 고문 및 이 현진 설립부장을 포함한 임원 3명은 2월 8일 오전 시애틀 시장실로 찰스 토이 어 시장을 예방하고 약 50분 동안 시애틀시와 한인회와의 협조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자리에는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민수 시애틀 총영사도 배석하였다.

한인회를 대표하여 신 호범 회장은 시애틀 지역에 2만여명으로 추산되는 한인 커뮤니티의 역사, 인구분포, 사회경제적 배경등을 설명하고 이중 상당수가 시민권을 가지고 명실공히 착실한 마이니리 리그팀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해주었다.

신회장은 특히 이 지역 한인교포 속에 포함된 약 1만명에 가까운 시민권자가 들은 앞으로 적극적인 사회적 정치적 참여와 올바른 의사의 반영을 통해 이 지역 사회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하여 토이 어 시장은 시애틀은 특히 아세아 여러민족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국제적성격이 강한 도시임을 상기시키며, 이러한 요소때문에 이 도시가 문화적 중요성을 간직하고 있음을 자랑스러워 어진다고 말했다. 중국, 일본, 필리핀 인들에 이어 요즘에는 동남아세아계 와 한국인들이 많이 와서 시애틀시의 인종적 중요성이 한층 더 다채로워 지는 가운데 이들이 사회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하는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고 했다.

토이 어 시장은 시애틀시가 아세아계 시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실제적으로 연중행사인 Sea Fair Festival은 이들의 다양성과 활력을 보여주도록 마련되는 국제적문화행사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한인교포들도 이 행사에 매년 적극 참여 하기도 한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신회장은 한인사회는 금년 Sea Fair 행사에 참석은 준비하고 있으며 고포 가운데 미스코리아 를 선발하여 동장시절 애정이라고 했다.

신호범 회장은 이어 오는 4월 23일 범교포적인 「한국의날」 행사



가 있음을 알리고 이날 시장이하 시행정부의 주요인사들이 참석해 줄것을 요청했다.

토이 어시장은 이날 참석할것을 약속하는 한편 자신도 스펀만 주지사 와 함께 4월 23일을 시애틀시의 「한국의 날」 로 선포할 뜻을 밝혔다.

●피사이몬스 시애틀 경찰국장 한인 경찰관 지원 요청

토이 어 시장을 방문하기전 한인회 대표들은 피사이몬스 시애틀 경찰 최고 책임자들과 그의 사무실로 방문하고 10시 30분 부터 약 1시간동안 한인사회의 현황과 한인회가 수행하고 있는 제반 활동을 설명한다음 한인사회와 경찰과의 협조문제를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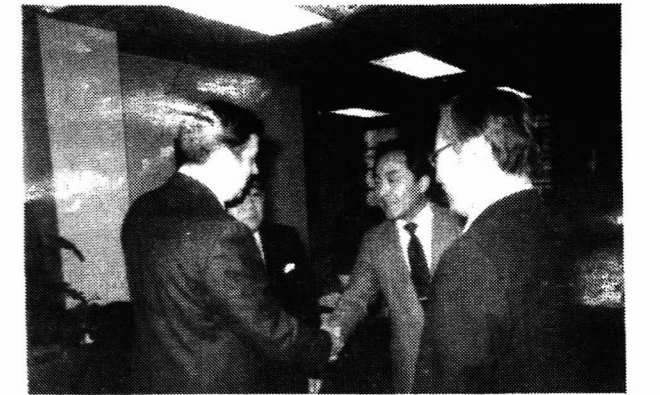
신회장은 한국인들의 높은 문화적 도덕기준을 강조하고 한인들이 이 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사이몬스 경찰국장은 이점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도덕기준은 미국사회가 배워야할 점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사회가 매스컴의 영향으로 도덕적 방항감각이 상실되고 있는 경향을 우려하면서 한국인들과 같은 견전한 도덕관이 존중가운대 사회안전이 확립되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회장은 한인교포사회의 언어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최근 이민자가 주요부분을 차지하고있기때문에 때때로 경찰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는데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음을 알렸다. 이 문제에 대하여 경찰국장은 시애틀시 경찰국에서 발간한 "Home and Street Safety" ("가정과 거리에서의 안전")라는 책자가 영어 한글대독판으로 나온것이 있으므로 한인들이 이책을 읽고 사고방지에 협조 해주기를 요청했다.

경찰국장은 또한 한인교포사회의 언어문제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중언어 능력이 있는 한인들의 경찰관지원을 환영하며 좋은사람을 추천하여 주기 바란다 고 했다.

피사이몬스 경찰국장은 한인회 대표자들과 만나 이처럼 유익한 대화를 나누게 된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고 한인회 방문팀에게 사의를 표하고 오는 4월 23일 「한국의 날」 행사에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알 림』

시애틀 경찰을 지망하시는 분은 아래사무실로 직접연락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라며 추천이필요할때는 한인회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Jim Yearby
Director of Personnel
Seattle Police Department

전화 : 625 - 4404

『축서』

새 한인회 일꾼들을
위하여

권신자

찬란하리라

태고의 기상을 싣고
새로운 오늘이 출범한다

잉태의 진통도 망각한
한 겨레의 맥박이 달리고

보람의 소리 드높은
힘찬 역군들의 합창이 들린다

이제 고독한 이방인의 가슴에도
한 줄기 빛이 흐르고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
이역에 피어날
무궁화의 축가를 부르자

우리 함께
단군의 우렁찬 박수로
내일을 향해

찬미하리라!

美國 50個州

어디서든

한국일보는 교포곁에
있습니다



南北美 14개
지사·지국망을 연결,
아메리카대륙의
24시간을 지키는
바로고 빠른
한국일보

시애틀 525 - 9222
타코마 588 - 2500

『한인회 활동』

●한인회 이사 임원 공동회의

한인회의 제 1차 이사임원공동회의가 2월 11일 (금) 한인회 사무실에서 이 동립 이사장의 사회로 약 3시간 동안 개최되어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안건을 논의 의결 하였다.

의결사항

- 한인회 회칙 수정안 최종검토 및 확정
1981년 9월 25일 및 1983년 2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회칙수정위원회 (김 덕환, 한 만섭박사가 각각 위원장으로 활약)에서 수정통과된 안에 대한 경과보고를 들은 다음 최종검토를 통한 자구 수정 및 미비사항보안을 마치고 확정시켰음.
- 장 부 관 선임이사 인준
1월 이사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선임된 장부관 이사를 만장일치로 인준하였음.
기능사회에 대한 한인회 협조 방안 수락
현기능사회회 회장이며 한인회이사인 문근성씨 제안한 기능사회의 한인회 사무실 사용 제의에 대하여 신 호 범 회장은 환영의 뜻을 표했으며 이에 대한 승인을 가결하였음.

●제 5차 임원회의

2월 12일 임원이사 공동회의에 이어 10시부터 12:30분 까지 속개된 제 5차 임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토론, 의결 되었다.

- 한인회관 건립
새 회칙에 의거 회장이 빠른 시일내에 회관 설립위원회를 임명 구성하도록 하였음.
- 봉사업무 계획 수립
봉사업무를 규정, 계획하여 한인회 봉사활동을 상무화 하기 위한 방안을 김영 남 봉사부장이 고안하도록 의임했음.
- 상사 지사와의 간담회
이 지역에 파견된 국내 상사지사와 교포사회의 상공업계 간의 상호협조를 목표로 한 한인회와 상사지사간의 간담회 개최를 3월중으로 실현하도록 조 성 옥 총무부장이 추진하도록 일임 하였음.
- 시민권자 협회 (가칭) 조직
한인사회의 권익옹호를 위한 시민권자 협회를 빠른 시일내에 조직할수 있도록 모든 준비작업을 각 종 세 부회장에 게 일임하였음.
- 한인회 자문위원회 구성
한인회의 활동에 좀더 광범위한 참여와 자문을 구하는데 필요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발표를 신 호 범 회장의 직접 주관하게 조 성 옥 총무부장이 추진하도록 의임하였음.
- 한글 학교 추진위원회
오 계희, 광 종세 부회장, 조 성옥 총무, 백 경숙 교육부장이 한글학교 설립추진위원으로 선임되었고 구체적 활동을 위한 첫 모임을 3월중 가도록 하였음.

- 한글학교 개강
한글학교 개강 준비에 대한 백 경숙 교육부장의 보고와 현 제 한인회에 들어온 입학원서 접수사항에 대한 총무부장의 보고 또한 그 간 내정된 교사들의 의견제시내용을 검토한후 3월 마지막 요요일까지는 한글학교를 개교하기로 하였음.

- 주소록 발간
2월중 으로 주소록 발간준비위원을 구성하기로 하였음.
- 시애틀 시장 방문 보고
2월 8일 한인회 회장단, 이사장 및 일부임원의 시애틀 시장방문에 대한 신 호 범 회장으로 부러의 보고를 정리하고 앞으로 시애틀 주변 도시시장 및 경각은 이 행정수반등도 조 속한 시일내에 방문하도록 추진할것을 결의 했음.

●제 1차 한인회 자문위원회의

83년도 한인회 과제토의 및
자문위원회 조직

한인회 활동에 대한 교포사회로 부러의 광범위한 자문과 비판의 문호를 개방하고 1983년도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교포들의 참여를 얻고자 신임 회장단이 구성한 자문위원회의 제 1회 회의가 3월 2일 오후 7시부터 10시 까지 한인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19명의 자문위원과 현 이사장, 회장단, 총무 및 편집등 26명이 참석하였다. (자문위원 : 김 간남, 안 병영, 한 만섭, 박 한진, 이 영호, 홍 인표, 김 병섭, 임 광희, 유 제인, 이 순모, 김 현중, 윤 학덕, 강 태원, 신 동준, 오 준걸, 김 무영, 심 상현, 강 동언, 손 옥봉, 박 진문, 윤 연학, 김 현길, 서 광선, 이 현기, 김 수정, 김 정부, 김 길량, 김 문규, 이 맏조, 이 충호, 정 철식, 황 수철, 김 동호, 김 명성, 리아 암스트롱, 이 동립, 오 계희, 광 종세, 조 성옥, 박 건홍.)

이날 회의는 먼저 신임 회장단의 임기시작후 2개월간 활동보고가 있었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과 현안문제가 소개된 다음 이에 대한 자문, 토의를 거쳐 실행위원 구성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월 23일 한국의 날 행사

- 목적 : 한인교포사회의 이미지를 미국사회에 드높이고 한인의 존재를 자랑스럽게 알리려는 교포적인 행사.
- 규모 : 전 한인교포, 미국사회, 정계, 재계, 언론계, 교육계, 연방/주/시 정부대표 및 유명인사, 한국 대사관, 영사관, 상사지사, 공공기관 관계자 초청.
- 내용 : 리셉션, 만찬, (약 1000명) 한인사회를



알리고 강연: 한국 문학, 예술, 민요, 예 권도 프로그래밍 소개.

(4) 장소: 시애틀 트레이드 센터 (Seattle Trade Center)

(5) 한국의날 추진위원회 위원: 신호범, 이현기, 박한진, 안병영, 박진문, 미아 암스트롱, 임광희, 온학덕, 유제인, 손옥봉, 임도승, 조성욱, 박건홍 (이외 추후 추가)

2. 한인회관 설립 추진위원회

(1) 위원: 홍인표, 조성욱, 김현중, 김무영, 이순모, 김간난, 백광호, 이동립, 한만섭, 오준걸, 오계희, 신호범, 신동준, 광종세, 임도승, 박건홍. (필요시 추후 추가)

(2) 위원회에서 앞으로의 모금운동, 회관규모 등 제반구체적 기술 문제들 토의 하기로함.

3. 7월중 시애틀 시 Sea Fair 행사 추진위원회

(1) 위원: 조성욱, 온학덕, 심상현, 박진문, 강해원, 강동언, 안병영, 임광희, 이현기, 김현걸, 오경아, 백경숙, 광종세. (추후 필요에 따라 추가)

(2) 동 위원회에서 행사 진행규모, 행사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키로함.

4. 올림픽 후원회 구성문제

(1) 마지막 교포사회에서 이미 결정된 바있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 시애틀 지역 후원회 구성 문제는 고민들의 광범한 자진참여를 토대로 구성할수 있도록 문호를 완전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온학덕, 이순모, 임광희씨 3인이 조직 발기인 대회 추진위원으로 수고해 주도록 임의 하였음.

(2) 올림픽 후원회는 손수고민사회 조직으로 할것.

(3) 발기인 대회의 일시 장소 선정은 외 3인이 결정하고, 조직방법은 참여자의 공동결정에 따르도록 함.



『교포사회동정』

『워싱턴주 한인 테니스 협회
사회장단 선출』

일 워싱턴주 한인 테니스 협회 는 총회를 열고 1983년도 제회장에 이계희 ()씨를 선출하고 이사, 임원진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회장 이계희 (488-8868)
부회장 강해근 (248-3371)
총무 홍경선 (789-7272)
지도 김동수

이사장 고봉식
부이사장 박정서

한인 테니스 협회는 1983년도 공식행사로 오는 3월 26일에 온게 온 경기대회, 4월 30일에 단체 대항전, 6월 11일 회원가족 피크닉, 8월중 시애틀 - 뱅쿠버 대항전, 그리고 10월 1일에 제 4회 워싱턴주 온 경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한다.

테니스를 배우고 싶거나 흥미를 가진분들 중 테니스협회에 가입하시고 저 하시는 분들은 총무 홍경선씨 (전화: 789-7272)에게 연락 바랍니다

『교포사회동정』

『이태영 박사 강연회』

이곳을 방문중이었던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소장 이태영 박사의 강연회가 2월 22일 시애틀 한인회의 후원으로 쇼마인 커뮤니티 관매지에서 열렸다.

"건강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 라는 연제를 갖고 이 강연회에서 이태영 박사는 한국 이민사회의 가족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에대한 의식적적 해결방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하였다. 이 박사는 이민 가족문제 해결방법으로 현재 이 지역 한인사회에서도 스스로 돕는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것은 국외 교포적인 일이라고 격려하고 본국의 가정법률 상담소 소장으로서 최대의 원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한인교포사회에서도 이렇게 노력에 적극적으로 하여 줄것을 당부하였다.

이 박사는 2월 26일 귀국했으며 오는 6월경 다시 시애틀 방문하여 현재 이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정법률 상담소"의 운영문제들 구체화 할것이라고 전했다.

“가정법률 상담소” 발기인 모임

이박사의 강연회에 앞서 2월 11일 가정법률 문제에 관심을 가진 워싱턴주 지역내의 관심있는 여성들이 시애틀 한인관에서 이 박사를 모시고 가정 "법률상담소" 발기준비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는 김간난 여사등 다수의 관심있는분들이 참석하였는데 이 박사는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의 지난날 발전과 오늘의 활동현황을 소개하고, 최근 미국내에 한인교포사회 인구의 급증과 특히 워싱턴주의 한인 본포상황을 특수성에 비추어 상담소 설치의 필요성이 커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발기준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회비를 내신회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계속 회원유 모집중이니 회원이 되고저 하는 분들은 P.O. BOX 258 30 Seattle, WA 98125 로 연락해주시길 요망하고 있다 한다. 동 발기준비위원회에서는 뉴스매거진 등하여 그동안의 경과와 활동에 대한 소식을 알려 드릴것이다 한다.

『교포사회동정』

●1983년도 워싱턴주 한인기능사 협회 조직완료

그동안 완전 경제상태에 빠져있던 워싱턴주 한인기능사 협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이 지역 한인사회의 대용을 이루고있는 기능인들의 공통적 이익을 위한 활동을 재정립 하기위하여 지난 1월 10여명의 발기인들은 동 협회를 재 발족하는 형식으로 문근성(현 한인회 이사)씨를 회장으로 추대하여 지도 체계를 확립하였다. 재 발족된 동 협회의 임원, 이사진 구성은 다음과 같다.

회장 문근성 이사장 담병석
부회장 황은경 이강표 이사 박은남
총무 이종선 이사 고광은
재무 배대남 이사 임병섭

고문: 온연하 감사: 권용성
조성욱

기능사 협회에 관한 문의는 총무 이종선씨 (전화:767-7390)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이 회보는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약 3,000부가 발행되어 고민어 여러분 의 각 가정으로 직접 우송될것입니다. 고민들께서 매월 이 한인회보를 받아 보시려면 정확한 주소를 한인회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주소가 부정확하여 발송되는 회보는 새 주소가 알려질때까지 발송되지 않겠습니다. 이사하신분, 새로 구독하고저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주소 기재만을 정확하여 한인회사무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애틀 - 워싱턴주 한인회 회원 주소 카드
(1983년 월 일)

성명	(한글)	(영문)
주소		
전화번호		

『교포사회동정』

●3·1절 기념행사 성료

2월 26일 오후 1시부터 메이크씨 스킨 샵에서 한인회 주최로 열린 3·1절 기념행사는 약 250명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 신호범회장은 인사말에서 3·1절정신을 삼켜 한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지고 호소했고, 내빈대표 최계은은 기념사를 통해 현재 한인관계는 마치 3·1 운동이 일어났던 당시 처럼 불균형한 상태에 있기때문에 세계 어느곳에 살든지 한인들은 민족적인 의식을 가지고 조국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장에서는

이날 기념식장에서는 한인회 회장단, 이사, 직원및 여러 회원 부인들이 한인회 기금 모금을 위해 김밥을 손수 마련하여 참석자들에게 팔았다.

기념식후 참석자 다수가 남아서 한인회가 마련한 국영화 감상 미소 들 관람했다.

“임시총회 좌절”

3·1절 기념식후 개최되었던 한인회칙 수정을위한 임시총회는 개최 2부부터 2, 3명의 회원이 회의 결사이익을 제기하고 중단하여 의사 진행 어렵게 만들어 신호범 회장은 회의 진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폐회를 선언했다.

임시총회가 이와같이 무산됨에 따라 한인회가 과거 2년간 추진해 왔던 회칙개정안을 통과 시키지 못했다.

『영어 못하는 사람 리커라이선스 못받게』
워싱턴주 리커 콘트롤 보드(주류관리청)

에서 입법화 추진

워싱턴주 리커 콘트롤 보드는 영어의 이해, 해독, 회화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류판매면허증 (Liquor License)을 발급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주의회에 상정, 통과시키려는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업시간중 영어능력 필수"라는 제목이 달려있는 이 입법안 (NBC 314-12-125)은 (1) 신분증조사 및 연명 미달자 또는 술에취한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술을 판수없게한 주류판매법을 실행하기 위하여 주류판매업소에 영업시간중 항상 영주 (면허소지자)는 영어를 읽, 쓸, 들, 말할수 있는 능력 또는 경찰및 조사관들과 영어로 대화할수 있는 고용인을 상근시켜도도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2)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면허최초의 충분한 사유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이 법안은 주류판매업소의 주인이 미국학생이거나 영어 유창한 사람이 아니면 리커콘트롤 보드에서 영어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할때는 언제나 면허증이 취소될수 있다고 풀이 될수 있다.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가령 영어능력이 부족한 한국인 식품 가게 주인은 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고용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법안은 영어 못하는 사람은 주류판매를 못하게 만드는 데 의도를 두고있다고 까지 보여진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부분 영세성을 띠고있는 한인교포사회의 식품업자, 특히 최근 이민자들이 곧 타격을 받게 될것이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업자들이름 하임으로 미국인을 고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신호범 한인회장은 한인회를 대표하여 지난 2월 19일 워싱턴주 주류관리청장에게 이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강력한 항의 서신을 발송했다.

신회장은 이 서신에서 역사상 어느나라도 정당한 기업행위를 언어문제를 들어 규제한 일이 없으며 더구나 미국과 같은 자유기업 국가에서 이법안을 만든다는것은 사실상 인종차별행위로 간주할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법안이 입법화 추진을 즉각 중지할것을 촉구했다. (신회장의 서신은 영문매거진에 전면수록 되어있음)

편집위원회서 알려드리는 말씀

1983년도 워싱턴주 한인 주소록을 발간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7일 오후 6시 30분 한인회 사무실에서 워싱턴주 한인주소록 편집위원회를 조직하고 미력한 본인을 그 책임자로 뽑았습니다.

본 위원회에는 신호범 한인회장을 비롯하여 이동립 이사장, 광종세 부회장, 오계희 부회장, 조성욱 총무부장, 박건홍 한인회보 편집부장 그리고 본인이 참석하여 주소록 발간에 관계되는 제반문제를 토론하였습니다.

주소록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의 발전상을 미국사회에 널리 알리고 대내적으로 한인들간에 흥신연락을 촉진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에 출판될 주소록은 정확을 기하고 가능한한 많은 국민들이 수록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기관·단체(교회, 영업소, 동창회, 친목회, 전문 기관등)의 대표 되시는 분들에게는 각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한인들의 정확한 주소록을 가능한한 속한 시일내에 확인하신후 오는 3월말 까지 한인회 앞으로 단체 주소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씨애틀 지역에 사시는 분으로 1983년도 한인회보를 우송 못받으신분이나 워싱턴주로 최근에 이주해오신분 또는 한인들의 주소변경사항을 아시는분께서는 아래의 한인회 주소로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확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는 많은 시간과 손이 필요하며 주소록 편집과정에는 각 가정에서 누구나 할수있는 일들도 있으므로 도와주실수 있는 분께서는 한인회 사무실(전화번호: 362-4500)로 서슴치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씨애틀 지역 한인주소록은 1980년 이래 처음으로 출판하게 되므로 본 주소록에는 최근의 정보를 정확하고 다채롭게 실릴 계획이며 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나 사업체는 물론 한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 기관과 업체의 광고도 대대적으로 실을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또한 본 주소록 편집과 병행하여 워싱턴주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실수 있는 미국시민권 소지자의 이름과 주소도 본 한인회에서는 접수하고 있오니 등록을 원하는 분께서는 한인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1983년도 워싱턴주 한인주소록 편집 위원장

김동호

한인회 사무실 주소: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2611 125th Street N.E.
Seattle, Wa 98125

전화: (206) 362-4500

회비·기부금·광고비 수납내역

1) 기부금 (특별 찬조금)			
신호범	\$ 2,000.00		
이동립	\$ 1,000.00		
광종세	\$ 100.00		
손욱봉	\$ 100.00		
(익명)	\$ 11.00		
한국복음교회	\$ 50.00		
심영섭 (부부)	\$ 50.00		
(익명)	\$ 100.00		
윤학희	\$ 171.33		
한만섭	\$ 100.00		
이경애	현물 (삼 300 LB)		
			합계 \$ 3,682.33 (현물 제외)
2) 한인회비			
김동호 (부부)	\$ 20.00	윤영중 (부부)	\$ 20.00
이경화 (부부)	\$ 20.00	김현길 (부부)	\$ 50.00
신호범 (가족)	\$ 100.00	심영섭 (부부)	\$ 20.00
이동립 (가족)	\$ 100.00	홍종호 (부부)	\$ 20.00
김간난 ()	\$ 30.00	허권 (부부)	\$ 20.00
김경배 (부부)	\$ 20.00	이경아 (부부)	\$ 20.00
장부관 (부부)	\$ 20.00	한용수	\$ 10.00
김정부 (부부)	\$ 20.00	Roy D. Kwon (내외)	\$ 20.00
김민재 (부부)	\$ 20.00	최계순 (부부)	\$ 20.00
이기희	\$ 10.00	김창송	\$ 10.00
이춘영 (부부)	\$ 20.00	이규하 (내외)	\$ 20.00
임옥란	\$ 10.00	James B Park (부부)	\$ 20.00
임춘식	\$ 10.00	Pam s. Lee	\$ 10.00
정창근 (부부)	\$ 20.00	박래호 (내외)	\$ 30.00
이병의 (부부)	\$ 20.00	이유삼 (내외)	\$ 20.00
윤연하 (부부)	\$ 20.00	합계	\$ 770.00
3) 광고비			
Appallo TV	\$ 60.00		
현대식품	\$ 10.00		
동서여행사	\$ 60.00		
김영남	\$ 10.00		
Kings TV	\$ 60.00		
중앙식품	\$ 30.00		
정도식당	\$ 80.00		
			합계 \$ 310.00
			총계 \$ 4762.33

한 노교포의 백서

고포 라는 말의 경의를 간단히 내린다면 조국을 떠나 외국 땅에서 사는 동족 집단이라고 하겠는데 한국 고포의 예를 들면 13도의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과 연령 별로 유아들도 부어 연노자까지 섞여 있고 학사나 박사 학위를 가진 유식층과 골목뜨는 무식층이 섞인 집단이며 종교적 배경도 기독교, 불교, 천주교, 천도교 혹은 무종교등 각종 배경을 가진 집단이다.

사상적으로 구별하면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임종 전체주의적 경향을 가진종교 무정부 주의자 허무주의자, 개인주의자들도 있을 것이고 직업별로 볼때 무역상사 행회하는 사람들, 유학생, 교육자등 학구생활을 주도하는 사람, 관공리들과 무식자들까지도 섞여있는 집단이다.

전쟁을 피해온 피난민도 있고 본국정부에 불만을 갖고 일종의 망명객으로 온 사람들도 있을것이다. 고포를 법적으로 분류하면 유학생들이나 여행객들 같이 귀국해야할 임시 방문자 영주권을 소유하고 거주국에 대한 납세의무를 갖었으나 투표권이 없는 간헐적 시민과 거주국에 귀화해서 이중 시민권을 소유하고 본국에 대한 납세의무와 투표권리를 포기했으나 다시 복귀시킬 가능성이 가지고 거주국에 대한 납세의무와 투표권 행사만 하는 미국시민등으로 나눌수 있다.

한국민족사상 처음으로보는 한 민족 해외평상 현상을 여러면에서 분석해볼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볼때 세계주류에 따라가는 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세계주의와 봉건제도의 세계에서 살아오던 민족들이 일종의 세계주의적 조류에 따라가는 발전계단이 아닌가 한다.

고포 구성요소들을 또 다른면에서 본다면 상술한 자발적 이주민의외, 남편이나 부모를 따라서 부득이 외국에온 부녀, 자질들 각 생활능력을 알고 자녀 친척을 찾아와 사는 연노들도 있을것이다. 전쟁 피난민이나 부모친척을 따라온 고포들은 대개 언어불통 생활능력 결핍으로 인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게되고 고독을 느끼며 사는 층이다.

미국정부에서 월페어 의 형식으로 주는 임시구제도 조차의 마이노리티 인 흑인들과 동양각국과 동남아시아 에서 밀려드는 이민수가 격증하고 있음으로 한인고포가 월페어 의 혜택을 받을 기회가 적다고 본다.

이런 현실에 있어서 우리는 고포단체 (한인회)의 필요성을 느끼게된다. 한인회 필요성을 더 따져보면 이같이 씨애틀에 한인회가 발족하면 초창기를 회고함으로써 한인회의 필요와 그 역할을 규명하게 한다.

집회가 별로없던 씨애틀에 고포들이 서로만날 기회를 갖기위해서 몇사람이 의논한 결과, 한인회 창립총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발기인으로 서두수, 이상희, 전계상, 이현기,이선복씨 그외 몇분과 필자가 한인회창립 총회준비위원이 되어 총회를 소집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해서 씨애틀 한인회가 창립되고 고포간의 친목과 상호부조를 주강령으로 내세우고 초대회장 선거는 총회에서 선거하지 못하고 (처음으로 모인 집회인지만 서로안면이 생소했던 까닭으로) 위원회에 일임해서 선거하기로 되어 위원회에서 최고년 장자요 가장오래 씨애틀 한인들을 도와오던 이창희 선생을 선거 했는데 이선생자신은 사양하시는것을 위원들의 강력한 권고를 회장직을 맡아 보신것이다. 회장선거에 있어서 책임을 피하고 유능한 여러 회원들이 변관아 회장임무의 경험을 계기로 논의되어 전계상, 이선복, 이현기 제씨가 순차로 선거되어 그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금일과 같은 발전을 보게된것이다. 필자가 발족시에 관여했던 관계로 한인회 발전에 관심을 갖지않을수 없으며 앞으로도 한인회가 발전하기를 기원하려고 한다. 고포 구성요소가 상술한바와 같이 각종의 배경을 가지

고 있기때문에 한인회의 임무가 어느 특수층만을 위해서 존재할수 없는것이다.

한국의 3.1운동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신조도 다르고 사상도 다른 이념이다. 서로다른 사람들이 민족이라는 지상명령에 의해 동일한 행동을 할수 있었다는데 있다. 이런 3.1정신에 따라 고포전체의 복리를 위해서는 사감정과 사리사욕을 초월해야 된다고 믿는다.

고포 상호부조를 역설하는 이 기획에 고포단체와 영사관과의 관계에 언급하고자 한다.

이번에 선거된 한인회 회장단과 위원단이 영사관과 협력하고 영사관 측에서도 한인회를 도와 고포동포의 복리를 위해 협력하려는것을 보고 장수를 들어 칭찬하여 마지않는다. 한인회가 공관과 협력한다고 해서 어용기관으로 되는것이 아니고 또 공관 자체도 한인회를 후원하는것이 한인회를 이용하려는데 있지않고 한인회를 통해 간접으로 고포전체의 복리를 외하는데 있으므로 공관에서는 본국정부에 대한 찬성자 불찬성자를 분별하지않고 이를 초월해서 공무를 수행하는 아량과 포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3.1절 기념식이나 8.15일 기념식도 한인회와 영사관이 연합주체로 거행하는 것이 3.1정신을 지향하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한인회 회장단이나 임원단의 임무는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집행하는 행정적의 개념을 가지고 있음으로 명령체가 될수 없는것이다. 또 회장단이 한인회를 이용해 자기 장래 정치적반을 만들려고 해도 안되며 본국에서 정당이나 정권에 소속해 왔다고 해서 한인회에 그런 정치적 파당을 부식해도 안될것이다.

고포단체가 건전히 육성되는것이 고포들 자체에만 복리가 오는 것이 아니고 본국에 그 영향이 미치게 되므로 우리고포한사람 한 사람 조국을 대표해서 행동을 하고있는것을 인식해야 될것 믿는다. 중국이 과거에 10여년간 계속해서 일본 침략군에 대항하여 전쟁을 해온 원동력은 세계각국에 퍼져사는 중국고포들이 매년 계속해서 수억불씩 근사비를 본국에 보내왔기 때문에 10년간이나 전쟁을 계속할수 있었다고 한다.

미국과 러시아 등의 큰 나라들이 인구와 영토가 적은 이스타 국가에 대해 외교적으로 압력을 가하지못하는 이유는 각국에 퍼져사는 유대인들 고포가 단결하여 일치 행동을 하는 역량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감히 강경한 외교 견제를 못하고 있다고 믿는다. 미국내외 유대인 고포 외곽에 미국대통령 선거와 주지사 선거, 의회 들의 선거까지 좌우할수 있을정도로 강함으로 이스타국에 대한 외교정책이 약한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예를 들어볼때 고포와 본국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관에서 고포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며 고포들도 공관에 대해 협력적 태도로 대해야 할것으로 믿는다. 공관의 원조가 필요한 경우에 주저없이 공관에 원조를 구해야 하며 정권은 바뀌어도 공관은 영구히 그사무를 지속해야 하므로 영구적 존재인것이다.

건전히 발전해오던 씨애틀 한인회가 지각있는 사람의 비신사적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른 지방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어 한인고포 권부에 기인해 특이 씩겨지지 않고 남아있으리라고 믿는다. 한인끼리의 내부적일을 외국인에게 호소해 외국인의 무원을 얻을려고 하는것은 비열한 행동으로 안다. 과오를 범한 인사들의 양심적 참회를 바라며 회장과 위원 선거에 임해서 인물선출을 좀더 신중히 하도록 회원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준다. 시비 국작을 잘 판단할수 있는 젊은 고포들에게 호소시켜 하노니 한인고포의 복리를 위해 봉사적 협력을 아끼지 않아 한인회 발전을 위해 직접, 간접으로 노력하시길 바라고 한인회 발전에 일로의 도움이 될가 하는 마음에서 이글을 쓰는 바이다.

한글학교에 관한 제언

이 익 환

우리 가족이 이곳에 와서 한 15, 6년간 살면서 아이들의 한글학교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은 한두번의 일이 아니었다. 수년전 와싱턴대학에서 주말 한글학교가 있었을 때는 큰 아이를 보내기도 했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때는 아이들도 작았으며 우리 거취문제도 불분명했기 때문에 한글학교 문제를 그리 절실하게 받아드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후 아이들도 미국이 커졌고 우리도 401 개를 넘게되고 또 그동안 서울에서 한 2년동안 살다 오기도 한 지금은 그저 막연하게만 생각할 수 없는 발등의 불도 화해 버렸다.

주위에 계시는 친구, 선배분 중에는 자녀의 한글학교 교육을 부럽게 "해결" 해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간혹 어기저기에서 지나치는 한국아동들 중에는 언어들 다 능숙하게 구사하는 것을 보기도 한다. 요즘 그런 경우를 목격하는 날 저녁에는 혼자 우울증에 잠기게 되고 도가 좀 지나치면 난데없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일장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일이 있고 나서 몇일간은 집사람과 약속해서 집안에서 일체 영어를 쓰지 않도록 하여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어색하게 변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별로 신중치도 못한 영어들이 되면서 이 되는 "정상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되풀이 하다가 오세는 한글학교 교육이 나의 개인적인 능력이 나뉘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주위에 같은 관심을 가진 가족들이나 최소한 자주 왕래하는 이들 과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면 좀 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지난번 시끄러웠던 한인회선거과정 중에서도 두 후보측이 공히 한글학교 문제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나 왔던 것을 볼 때 이런 고민이 우리 한 가족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 한인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된다.

한인회 분과가 일단락 되고 새로 선출된 회장단이 새 출발을 하려는 지금에는 이제 구로서만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한글학교에 관한 한인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관심있는 본들의 의견을 물으고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계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글학교와 같은 우리의 기본적인 공동체적 과제에 그동안 분산되었던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집중할 때 우리사회의 내적인 화합과 발전도 되 따르리라 확신한다.

한글학교의 설치, 내용,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앞으로의 의문 초의 연구과정에서 자연 율어러 나올 것으로 본다. 나는 여기서 그동안 논쟁안에서 아이들과 싸우면서 느낀 몇가지 생각들을 별 두서없이 노출시킴으로서 앞으로 있을 우리의 협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쓴다. 우선 맨 밑바탕에 들어가 생각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문화의 뿌리를 심어 주려고 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결국은 이 전체 미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것이며 그렇게 살다가 또 그렇게 대를 이어나갈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저국적 당연한 말이지만 "상선권 금수강산"이란 관념이 머릿속 깊이 박혀있고 수출되면 "에이 죽기전에는 내방에 가서 문혀야지" 하는 우리네들과 어찌하여 "보스톤 리 파인" 다 "와싱턴", "링컨", 최근에는 마틴루터 킹 이야기들 들어가며 "토인", "스카르렛", "환상속에서 자라나는 우리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입장과 생명의 차이"가 있다. 이 세대간의 입장의 차이가 앞으로 닥쳐올 그때그때의 상황에서 어떤식으로 일차 나라이가 하는 것은 지금 어느누구도 가만히 앉아서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각자가 가진 경험과 역사적 지식의 한도내에서 앞으로의 줄거리를 대응 내다볼 수 있다고 믿는 것 뿐이다.



「미국 시민으로 자란다」 또는 「그렇게 커온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글학교란 명제에 몇가지 조건들은 제약을 상정할 수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한글학교는 시간적으로 주말학교나 주 일회 학교 정도로 밖에 될 수 없다. 한국서 학교 다니는 아동들에 비하면 여기는 놀고 먹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 아이들도 그런대로 바쁘다. 아침부터 오후 서너시까지 학교에 있어야하고 집에 오면 숙제도 있고 동생들이나 집을 보아야할 일도 있고 또 피아노나 수영이나 과외활동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요 주말에는 동네 축구팀에도 한 몫 끼어 뛰는 수도 있다. 또 틈틈히 남는 시간에는 예매피도 보아야 하고 비디오 게임 재미도 좀 보아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글학교 한글학교는 이런 일과중 어느 한 음에 끼어 넣을 수 밖에 없고 기존 일과를 일부 희생한다고 해도 최소한 일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느 중국 학교는 주중에도 방과후 몇 시간씩 하는 모양인데 현재 우리 한인사회의 능력으로 그런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느냐 하는 현재문제는 제치 놓고라도 우선 그런것이 바람직 할 것이냐 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세계 어느곳에 가서 살던 하나의 폐쇄된 소 문화권을 형성해가면서 살아온 그들 화교들의 경험과 생애로는 방과후 과외수업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일 중국인 학교도 세울 수 있는 것이 겠지만 이런것이 앞으로 우리 한인사회 및 한글학교의 비전이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데는 필자로서는 의문이다. 이곳 사회의 이념인 Melting Pot 이면에는 특히 소수민족의 입장에서 허다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글학교를 세운다는 과제를 놓고 생각할 때에 최소한 원칙적으로는 그 작업의 초안으로서 어떤 폐쇄된 소 문화권의 구성원만을 상징할 것이 아니라 전체 미국사회 또는 인류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공헌해 나가는 우리나 아이들, 그러면서도 우리문화의 뿌리를 강력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의 아이들을 상징하는 것이 온당하리라 본다. 우리 일체들이 이곳 사회에서 겪어내고 있는 약한 처지 그리고 보이게 안보이게 이사회 밑바탕에 깔려있는 인종차별의식 때문에 우리의 후세가 이곳에서 성공적인 시민으로 성장해 가는데 크나큰 제약과 장애가 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들도 많은 시련과 실의, 좌절을 맛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곳에 와서 살기를 선택한 데서 연유된 운명이며 우리는 그 앞에 움추러들지 않고 싸우며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최소한 우리의 후세를 길러내는 데는 그러한 데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성장해 갈 우리의 후세」 라는 이미지를 그려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한글학교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도 어느 화교 학교와 같은 것이 아니라 보다 개방적인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좀 욕심을 내서 말한다면 한글학교에서의 교육이 주중에 받는 정규학교 교육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정규교육의 일부처럼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

우리 꼬마들이 다니고 있는 시애틀을 학교내의 어느 국민학교의 예를 든다면 요즘 구경이 가까워온다고 반에서는 특별 한글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사, 학부모, 학생 일동이 한달동안에 걸쳐 한국의 역사, 문화, 음악, 음식 등에 대한 강의, 영화, 실습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한글학교가 있다면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

가져고 참가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몇년전만 해도 할 말하던 Bi-Cultural Education 이 요새 정부 예산삭감으로 거의 중단상태에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생각해봐서 찾아보면 그 프로젝트가 학년 (또는 학기단) 역할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공헌하면서 정규교육과정과 밀접한 연결관계를 맺어나갈 수도 있다고 보며 또 정규학교에서도 환영하리라 본다. 이런 관계를 발전시키 나가면 정규학교 내지는 주류사회에 우리 한인학교 및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켜 될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한글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글학교, 한글교육의 중요성도 새삼 인식시켜 될 것이다. 한글학교가 제대로 움직이게 될 때 학교정에 요구해서 거기에서 배우는 시간을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으로 본다.

우리와는 상이한 아이들의 입장과 생애는 한글학교의 교육과정내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가정 한국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던 한국어 어느 국민학교,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국사와는 좀 다른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사실의 내용에 들어가면 세종대왕이면 세종대왕이라고 고백자기이면 고백자기일 수 밖에 없지만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이들에게 친근하고 비슷한 사례와 비교, 대조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세종대왕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이이지만 여기에서 출생했거나 일찍 이곳으로 이사해온 아이들의 의식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의외로 까마득히 느낄 것이다.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 마음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아무리 부모의 나라고는 하지만 한국은 멀고 현실은 지금 있는 여기이다. 여기에 거리감이 없는 세종대왕은 차마 비현실적으로 들릴 것이다. 역사적으로 돌리겠지만 비교와 대조를 통해 어떤 거리감을 형성해줄 때 그때서 한국에 대해서 느끼는 물리적 거리감과 일치할 때 보다 생생한 이해가 되리라 생각한다.

한인사회의 현실도 보아 우리 부모중에서 경험있는 본들이 고사도 수고할 것이 예상되지만 이런점에서 볼 때 우리네는 좋은 고사가 되기에는 너무 한국과 밀착되어 있지 않나 싶다. 아마도 이상적인 선생은 같은 입장, 환경에서 자라나고 그들의 선배들일 것이다. 한글학교를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이들 선배들 특히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선배들을 자주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학교 경쟁에 바쁘고 시간이 나면 좀 더 놀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한글만자라도 더 가르쳐주고 하면 한글학교에 무슨 흥미를 느끼도록 꾸미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단순히 "가가거거...나" "제일과, 제일과" 가 아니고 생활주변에 가까운 무엇과 연결시켜 본다면 하는 식의 학교과정에서 Activity Program 실습과정을 많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초에는 떡만들기 추석에는 광수얼레 술타이도, 해군도시법, 운동시합등. 또 한국문화전시회에 단체관람, 해군함정이 올때에는 어른들만이 갈 것이 아니라 한글학교 학생들도 가서 배도 한번 아보게 한다든지, 더 나아가 인디언 문화센터에도 가보고 좋은 영화가 있을 때는 단체로 관람하고... 물론 이 모든 흥미로운 행사가 흥미본위로서가 아니고 사안에 미리 계획된 교육내용과 면밀히 연결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자칫 한글학교가 재미보는 곳으로 만 될 때 그 학교를 매개로 해서 전달되는 내용 즉 한국문화 자체도 어린마음에는 서서하게 어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좋은일이 다 그렇듯이 「바람직한 한글학교」란 많은 쉬워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뛰어나게도 우선 관심있는 부모들의 적극적인 후원 협조 및 참여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후원과 참여를 총괄하며 계획하고 지시하는 중추적인 기획기능이 필요하며 여기에 한인회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 한글학교를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

보려고 하는 데에는 우리것을 후대에 물려주고 하는 어떤 본능적인 종족의식이 있는 것인지 모른다. (아이들 장본인이 요청한 것은 아니니까) 그 국을 떠나면서 두근은 인정, 우리의 몸이 지구 한시라도 있을 수 없는 관습, 문화, 인간관계를 이땅에 심어보자는 것일 수도 있다. 또 혹자는 몸은 비록 여기에서 살지만 멀리서라도 우리의 그국을 위해 무슨일을 할 장래의 애국애족자들 그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나는 한글학교의 종국적인 목표와 보 많은 한글과 한국문화를 배우면서 이땅에서 자라갈 우리아이들 개인 개인의 발전과 장래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한국어도 하나의 기술이고 한국역사, 문화도 지식이니 한국인 부모앞에서 쉽게 익히려면 앞으로의 삶에 귀한 방편이 될 수도 있다는 실제적인 계산도 중요 하리라.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한 개인의 일생을 넘는 어떤 문화적 역사적 연속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느낌, 또 이런것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 또는 외계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것은 기능과 능력이 신장화되는 이 미국사회를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공기와 같이 불가결한 마음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

(필자 : 사업가)

가나안 여행사

친절과 신용분위

- 국제 및 국내 항공권 판매
- 각종여행 수속
- 항공권 월부판매
- 이민수속 및 가족초청서류
- 교포여권 갱신업무
- 각종서류 번역
- 각종공증 업무
- 항공권 배달

409 Maynard Ave. So., Suite 107
Seattle, WA 98104
 (한일각양)
(206) 624-6461

조국과 겨레와 바다에

지금 한국은 사늘한 1월의 겨울입니다.
 새하얀 언덕위에 한마리의 새가,
 학안눈을 좌우면서 그들의 보금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한조각의 구름이 몰아오는 바람을 타고서,
 그들의 자해를 사랑하는 양 산 넘어 산 넘어 떠내리 갑니다.
 시애틀 고민 어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초청해주신 총영사님과 고민회장님 그리고 수많은 관계자들
 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 해군 사관생도 총원은 해병양의 엄
 약한 파도에 불구하고 고민 어러분들께서 엄터 해주신 덕분에 무
 사히 견뎌왔습니다. 수억만리 이국에서 조국을 위해 오늘도 분
 주히 뛰고 계시는 분들 언어장애, 통속차이등을 무사히 극복하시
 고 하국의 하늘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그 땅, 그 장면을 잊을수 없
 습니다. 수많은 고통이 저희에게 주어진데도, 그때 그 장면을
 잊지 못할것입니다. 그리고 위안을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습이 끝난뒤, 국내에서도 수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나카노에 일본수상이 직접한국을 방문하시고, 37년만에 일장기가
 성황대에 게양되면서 일본국가가 울려 퍼졌으며, 일본수상이 직
 접 전 두환대통령을 초청했으며, 그리고 저희의 마지막 갈망한
 생도 휴가를 보내면서, 미연 많은, 그러면서도 파란 만장했던 생도
 생활의 막바지라는 생각에 우선 아쉬움을 감지 못했습니다.
 이번실습을 마치면서 저는 나름대로 수많은것을 느꼈습니다.
 먼저 국가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싶었으며, 수많은 관
 계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국내에서 대통령 정책
 에 대한 지나친관심과 불만을 앞으로는 좀더 저양되어야 겠다고 생
 각했으며, 선전으로 헬레비를 알리지는 외국프로 헬레비를 보면
 서, 국내에서 선전이 결코 많지않았다는것과, 수차택이나 방영
 되는 헬레비 영화 프로그램, 메이다 암저포는 숨은경찰들이 고통
 외관 차양을 찾는것을 보면서 국내에서의 손찰은 정만신사적이라
 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땅위에 산다
 는건과 외사를 마음대로 전달될수있는 한국땅에서 산다는것이 그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에 대해서 수십번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 섭섭한 사실이 있었다면 고민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한국정
 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종락)
 이제 꽃피고 새우는 4월이 오면 저희들의 졸업식및 입관식이 거행
 됩니다. 따뜻했던, 말없이 포근했던 엄마 품에서 이제는 조국과
 겨레를 위해 떠나게 됩니다. 총영사님과 고민께서는 우락돌을
 믿으십시오. 우리들은 어러분들의 변안한 삶을위해 이나라,
 이 겨레를 지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애틀 고민어러분, 그리고 가정에 앞날에 무궁한 영
 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포만에서 사관생도
 최 상 복 드림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움시다

『한인회 영화상영 안내』

한인회에서는 교민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화를 상영하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영화제목: 『가을비 우산속』 (극영화)
 문화영화 1편 동시상영

일 시: 1983년 4월 9일 (토)
 오전 11시 및 오후 7시 2회상영
 장 소:레이크시티 스쿨 (한인회사
 무실전물) 강당

관 랑 료: 무료

※ 참고: 영화상영후전 부인회에서 준비
 한 음식이 판매되겠습니다.

1983년 3월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회장 신 호 범

『공 고』

88년 서울 올림픽 시애틀 교민후원회
 창립총회 개최

88년도 서울 올림픽 유치는 우리 국민의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국력을
 전 세계에 과시한 것입니다. 이 88년도 올림픽을 성공리에 끝내기
 위하여 시애틀 고민 후원회 창립총회를 범고포적으로 아태대 같이 께
 취 코 저 하오니 많은 분들이 참석 하셔서 후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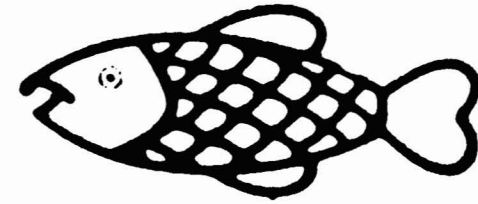
아 래

제 목: 88년 서울 올림픽 시애틀 고민 후원회 창립총회
 일 시: 1983년 4월 2일 (토요일) 오후 7:00
 장 소: 한인회 회의실
 주 최: 발기인 일동

오로라식품및 생선가게

※ 저렴한가격 · 친절봉사 신선한식품 ※
 동양식품 일체 각종귀국선물

542-6577



저희 식품점에서는 항상 살아있는 구이덕과
 싱싱한 생선을 범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OPEN: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 30분 (년중무휴)
 일요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16300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 고국의 소식과 흥취가 가득 담긴
 週刊中央 무료배부!!



주간中央
 본 주간중앙은 중앙일보
 애독자에 한하여 무료로
 배부해 드립니다.

中央日報
 광고 및 구독신청은

시애틀 ☎ (206) 838-3155
 타코마 ☎ (206) 927-5915

공관및지사

씨애틀·와싱턴주 한인회 SEATTLE·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P.O.BOX 24992 SEATTLE WA98124 TEL:(206) 362-4500		씨애틀총영사관 KOREAN CONSULATE GENERAL #1125 UA Bldg .6th Ave (206)682.0132
대한무역진흥공사 씨애틀무역관 900-4th Ave #1245 Seattle WA. (206)623-3588/9		한국일보씨애틀지사 THE HANKOOK ILBO 7320-20St Ave N.E. Seattle WA. 98115 (206) 525-9222
 中央日報 (206)838-3155 927-5915	 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SEATTLE BRANCH 600 UNIVERSITY STREET SEATTLE, WASHINGTON 98101 (206) 622-7821	 韓進海運 HANJIN CONTAINER LINES, LTD. KOREAN FLAG SERVICE 157 YESLER WAY SEATTLE, WA 98104 ☎(206) 447-9422
 THE ORIENTAL DAILY NEWS (206) 244~9930	美 洲 東 亞 日 報 社 THE ORIENTAL DAILY NEWS (206) 244~9930	株式會社 韓進海運 HANJIN CONTAINER LINES, LTD. KOREAN FLAG SERVICE 157 YESLER WAY SEATTLE, WA 98104 ☎(206) 447-9422

한인업소 안내

여 행 사 김여행사 KIM'S TRAVEL SERVICE #619 Lloyd Bldg 603 Stewart St Seattle WA 98101 (206)624-2227/8	동서여행사 EAST WEST TRAVEL SERVICE Securities Bldg #635 Seattle WA 98101 (206)623-2157/8 367-1935	타코마 한국여행사 11222 Bridgeport way . S.W. Tacoma.WA 98499 588-0333/7788 이 주 응
가나안 여행사 CANAAN TRAVEL SERVICE #107-409 Maynard Ave. So Seattle WA 98104 (206)6246461	킹여행사 KING TRAVEL AGENCY 504 S.King St. Seattle.WA98104 (206)624-9844	식 품 점 김치마켓 KIMCHEE MARKET 6400 So. Yakima Tacoma WA 98408 (206)475-6128
대한여행사 KTB KOREA TOURIST BUREAU Dana Plaza Sute#5 31260 Pacific Hwy. So. Federal Way WA98003 Tacoma(206) 952-5595 Seattle(206)941-8866	한국여행사 KOREA TRAVEL SERVICE 2636 2nd Ave Seattle WA 98121 (206) 623-9290	부 한 식 품 공 장 방앗간 마켓 각종떡 두부 참기름 10001 KLINE ST. S.W TACOMA, WA. 98499 TEL. (206) 588-7300
장여행사 10212 5th Ave. N. E. #220 SEATTLE. WA 98125 (206)523-7057	태평양여행사 PACIFIC TRAVEL SERVICE 5649-17th Ave S.W Seattle WA 98106 (206) 767-7390	서울식품 6405 Steilacoom Blvd SW Tacoma (206)588-9222
한인업소안내 광고 씨애틀한인회 전화 (206) 362-4500		

한인업소 이용하여 한인사회 육성하자

아로라식품점 16300 Aurora Ave N. (206)542-9489/6577	현대식품 10402-16th Ave S.W. Seattle WA 98146 (206)762-4792	태화각 : 수타국수 전문. 에버렛 : 3133 Broadway, Everett 켈모어 : 6312 Bothell Way N.E. Seattle ☎485-4020(켈모어)252-1663(에버렛)
아줌마식품 AHJUMMA ORIENTAL FOOD 31260 Pacific Hwy.S Federal Way.WA98003 (206)941-123	식 당 국일관 한국식 중화요리 수타국수 각종연회석완비 영업시간 11:30am~10:30pm 12408 Pacific Hwy SW Tacoma 582-7720	북경반점(Grand Peking) 839-1787, 952-1787 영업시간 아침11시~오후10시 1706-A So. 320th Federal way, 자동차수리 101 바디샐 525-5778 미국차, 외국차, 바디 페인트 무료견적 All Insurance Work 10059 Aurora N Seattle 레이크우드 자동차 정비 ★튼업·부레이크 전문 ★최신장비 (SUN SCOPE) McChord 공군부대 입구 (EXXON)588-3983
오대양식품 543 N.E. Northgate Way Seattle 363-6850·365-9844	사보이식당 선지국 해장국 전문 622-7424	산 장 582-9889 중화 및 한식요리 연회석완비, 나이트클럽 10203 Sales Rd Tacoma
장미상회 1414 So.324th St. Federal Way WA.98003 (206)941-8144	왕 궁 식 당 씨애틀 수타국수 전문, 중화요리 오전11시30분~오후10시까지, 7119 Empireway S.723-1958	울림픽 바디샐 (타코마) 성실봉사, 무료견적, 무료토잉 ◆보험수리 ◆청구대행 4040-100th SW Tacoma 584-2865
제일식품 21405 Hwy 99 #A Lynnwood WA98036 (206)774.4103	장미원 오후4시~새벽2시 금,토는 새벽4시 8904 Aurora N Seattle 525-1335	타코마 오리엔탈 바디샐 BODY&PAINT 등 일체 한국인 특별할인 보험수리전문 582-1364, 584-1938
중앙식품 9641-15th Ave S.W. Seattle WA 98106 (206)762-5620	청도식당 367-9339 ●수타국수 ●순한국식중화요리 영업시간: 화~목 12~10시, 금,토 12~11 일요일 1~10시 13744 Aurora Ave. N. Seattle	CHOI's Auto Service 국내차중 포드, 닷지, 세보레 도요다 불보, 닷선, 혼다만 취급. 딜러 8년경험의 524-2960
켄트상회 23633-104th Ave S.E. Kent .WA 98031 (206)852-8388	한국관 ☎ 622-1936 212 4th Ave So. Seattle 98104	Greenlake Auto Electric (자동차 전기전문 수리) 국내외차 스타터 및 윌터네이터 각종라이트 브레이크 엔진튜업 아크월딩 Emission 유명메이커배터리 취급. Control (개스배기량검사) 782-4895 6501 Aurora Ave. N. Seattle
탐스종합도매상 3306 So.170th St Seattle (206)243-7040(타) 582-1158	한 일 각 Hanil Korean Restaurant 409 Maynard Ave. S. Seattle, WA 98104 (1st Fl. Bush Hotel in China Town) (206) 587-0464/0465	Skips Body Shop 838-3869 완벽한기술, 완전한수리 무료토잉, 인슈런스대리취급 교포들에게는 할인봉사 839-5193 24433 Pacific Hwy So. Kent
한 미 상 회 ORIENTAL FOODS & GIFTS 9618 PACIFIC AVE. S. TACOMA, WA 98444 535-2423	한국식품 우와지마앞 682-2992 514.6th Ave S. Seattle	

한인업소 이용하여 한인사회 육성하자

회계사무소		보 험		선물센터	
김 종 구 회계사무소 공인세무사 장부정리, 개인 인감, 362-8370 신속 정확한 서비스 367-0655 절대 비밀보장, 재무 상담환영 13051 37th Ave. NE Seattle		 박법신 종합보험 자동차·주택·생명·건강 보험의 대명사 메트로폴리탄보험 455-0650, 367-2144(집) 588-0333(타코마)		오로라선물센터 각종졸업선물 결혼및생일선물 귀국선물취급종목·각종시계, 런던 포그.(달러쉽 획득) 전기제품 운동기구, 화장품, 362-8617, 454-2087/14107 Aurora Ave	
심상연 인컴 택스 중소기업장부정리, 세무상담, 일반인컴택스 은행용자 상담, 퇴직연금상당, 공증업무취급 10307 Bridgeport Way Tacoma 474-1802 582-1644		정문언 종합 보험 ★자동차 ★생명 ★주택 ★건강 ★사업 10059 Aurora N. Seattle 523-9111, 523-8944(집) 582-8989(타코마)		미도 파 백 화 점 런던포그 달러쉽 고급화장품 비타민, 골프세트, 비데오, 칼라TV, 악세사리, 시계일절 테니스라켓 584-1991	
이규영 계리사 컴퓨터로 장부정리 일반 인컴택스, 중소기업 장부정리, 퇴직연금상당, 세무상담 공증업무, 기밀절대보장 2809 4th Ave Seattle 623-4181~3		강성국 에퀴터블 보험 생명 및 건강보험 전문  588-3112(타코마) 624-8380(시애틀)		타코마종합선물센터 골프채, 테니스라켓, 전기제품 오메가시계, 화장품일절 11602 Pacific Hwy Tacoma Bus 581-1100, 582-6044 Res 581-0515(24시간)	
인쇄소 쇼어라인 그래픽스 3008 NE 127th St Lake City Way 와 127가 364-6632		최영세 에퀴터블 보험 생명·건강·자동차·주택  Bus: 624-8380 Res: 365-0085		신신 선물센터 *시계 *보석 * 런던포그 달러쉽 획득 * 화장품 일체 * 골프세트 * 비타민 582-2975 8518 So. Tacoma way	
뉴모드 인쇄소 6433 So. Tacoma way Tacoma 475-7429		이 형 석 - 보험 자동차 전문 생명·교육성·장래성·사업·건강·주택 Res. 226-6151 Off. 285-3151		테레비 꽃집 한국 테레비 냉동 회원비 없음 (전 멜로디 T.V.) 비데오 테이프 대여함. 31219 Pacific Hwy S. Federalway 98008 839-7155, 952-5140 타코마	
Express Copy & Print 각종인쇄, 명함, 청첩장, 회보 등등... 여권, 결혼사진 ■ 사진현상 ☎785 8415 Greenwood Ave N. Seattle 789-7272		화 장 품 POLA 화장품 폴라화장품 Director Mrs 박 미용가능 Lakecity 365-1230 * 미용상담 환영		킹 TV (우와지마아 앞) * 소니 달러쉽 회원 모집중 * 한국에서 직수입한 MBC KBC 한국 비데오 ☎624-9815, 747-7234	
BRIM PRESS (각종 한글 및 영문인쇄)  450 S.W. 153rd SEATTLE, WA 98166 (206) 433-8811		서 적 한국서적센터 ☎584-8292 한국의 모든책을 공급합니다. 비데오 테이프 판매 및 대여 11101 Pacific Hwy. S.W. Tacoma, 월드북 백과사전 (WORLD BOOK) 정가보다 \$ 125 싸게 구입요령안내 심재영 762 - 2265		PACIFIC 531-8408 이종만 ROSEHOUSE * 퍼시픽 장미의집 * 실내장식, 결혼, 개업, 파티, 장례, 모든 꽃화환 11812 Pacific Ave. Tacoma, 스튜디오 꽃집 결혼약혼식꽃 실내용화초 각종축하용화분 장례식꽃 4222 E. Madison Seattle WA 98112 325-5032 367-1534	
사 진 하바하바사진관 5610 So. Yakima Ave. Tacoma WA. 98408 (206) 475-6226					

한인업소 이용하여 한인사회 육성하자

병원 · 한방원		홍인표박사 신경·정신과전문의 901 Boren Ave Cabrin Tower #707 (206) 587-5747 587-3748		핑크양장점 프라자원아워크리너 PINKY DRESS MAKING 9741 Holman RD. N.W. Seattle, WA 98117. 784-1624 김 재 회			
임도승산부인과 Kent Medical Center inc P.S 222 N. State Kent WA WA (206) 872-3400 631-5863		로명재산부인과 * 201 N. Division St Auburn WA 98002 (206) 833-2580 * 1711 324th PI Federal Way WA 98003 (206) 927-8440		진한방원 461 E. Hastings St. Vancouver B.C. Canada V6A 1P5 (604) 255-7033		박 글라라 의상실 절개식 특수재단 양장·남녀복 수선전문 542-7855-775-8923 Aurora 185th st.	
이창준 산부인과 10109 Plaza Dr S.W. Tacoma WA. 98499 (206) 584-4355/4357		한성한방원 11226 Bridgeport Way SW Tacoma WA (206) 582-9060 537-2068		부 동 산 사업체 전문부동산 노명건 사업체를 사실때나 파실때는 사업체 전문부동산 회사로 연락하여주세요. 사업체 투자상담에는 물론 성심 성의껏 봉사해 드리겠습니다. VR BUSINESS BROKERS 774-5200 1-568-5551(낮) 1-337-2480(밤)			
오덕주산부인과 23rd Ave S. W. & Meridian So Puyallup WA 98371 (206) 848-4453 1624 So. "I" St Tacoma WA. 98405 (206) 627-0909		보혜사한방원 8107-22th Ave S. W. Seattle WA. 98106 (206) 762-8566/3493		채 태 용 부동산 * 비지니스 전문 Broker 집 588-4343, 582-5990 사무실 584-2700			
박창식내과 801 Broadway #912 Heath Prot Bldg (206) 324-5867 827-4014		제일한방원 17421 . 30th . Dr S. E. Bothell. WA 98011 483-8136 이 명 심		오화실 부동산 주택전문 455-9571 455-8370(사무실)			
이영주치과 10209 Bridgeport Way S.W. Tacoma WA 98499 (206) 581-1412 * Stevens Dental Cental 20728-76th Ave W. Edmonds (206) 775-3456		동양한방원 16715 Park Ave S. Spanaway (206) 537-9592		김현중 부동산 * 집없으면 집을 사시고 집 있으면 집을 파세요. * 각종사업, 주택, 토지투자 상담 774-7828, 774-3839			
조병규치과 * 215 N. 125th St Seattle WA (206) 367-5570 776-8512 * 1815. So. 324 th PI Federal Way (206) 838-3180(Seattle) 927-4996(Tacoma)		중국한의원 605 So. Jackson St Seattle. WA 98104 (206) 628 - 0950 한의사 유 환 복		장국경 부동산 244-9114 Washington Realty는 모델매매, 건축물전문. 건축자금 융자도 5년까지 해드립니다. 사실분, 파실분들 연락바람 838-3324(집)			
양 복 양장점 세탁 장씨양복점 및 세탁 몸에 맞지않는 양복을 잘맞게 가죽 옷도 수선 및 일절 세탁도 월-토 8a.m. -6p.m. 20005 Hwy 99 Lynnwood, 775-3222 장 성 완				동서부동산 EAST-WEST BROKERS 8624 Pacific Ave # 12 Tacoma . WA 98444 537-3214 이 상 진			

한인업소 이용하여 한인사회 육성하자

김수잔 부동산 Benton's Properties Inc 6100 Rooseveltway NE 98115 BUS: 524-3900 RES: 392-8535	간판 페인트 건축및집수리	
김종구 부동산 West Coast Homes ◎사업체 주택 사실때 파실때 노스지역 367-0655, 362-8370	Kim's Art Sign & Painting • 미술간판, 실내장식(Bar, 식당) 내부페인트 및 수리 곰보벽, 벽지 878-1445(시애틀) 474-4998(타코마)	백광호 건축설계 사무소 13434 - 40th Avenue N.E. Seattle, Washington 98125 (206) 365-2380
골동품 피아노	PARK'S SIGN 242-6801 미술간판, 한문, 한글, 영어 오후3시~ 연락바람 367-0123(낮) 525-7680	김스 종합건설 3825-191st S.W., Lynnwood, WA 98036 DAE J. KIM Telephone (206) 771-8019
동양 골동품점 ORIENTAL GIFT SHOP 8817 Pacific Ave. Tacoma, WA 98444 BUS: 535-6230 RES: 531-9225	파리공예사 각종간판, 실내외 페인팅 라이선스와 본드, 무료견적 타코마 473-3819 시애틀 523-7057	ALOHA PACIFIC PLUMBING 변기 세면기 욕탕 부엌싱크 수리 및 363-5383(집) 362-6368(사무실) Aloha PP205QQ
 YAMAHA 776 - 9610 (집) 365 - 5540 (사) 세계피아노사	SONG'S 페인팅 *내부 및 외부 *천장, 벽, 도배(월페퍼) 무료견적 곰보전문 ☎525-7680, 546-1572	권스 랜드스케이핑 콘크리트, 헨스 잔디심기, 돌쌓기, 공터매꾸기 및 불도져 작업 정원손질일체 무료견적 821-1960(집) 821-1178(bus)

교회안내

씨애틀 천주교회 성조지 성당 매주일 오후 1시 5306 13th Ave S Seattle 838-5924	워싱턴 한인 루터 교회 담임목사 박기영 Washington Korean Lutheran Church 740 South 128th Street, Seattle, Washington 98168 (206) 243-8555, 242-6600(Church Office) 242-8807(목사관) 대예배주일오후 12:30 • 저녁예배 4:30 (설경강해) 수요집회: 밤 7시 금요일철야기도: 밤 10시 (금)
타코마 천주교회 성 피터 & 바오로 성당 매주일 오전 10시15분 Portland Ave & 34th Tacoma 927-9533	씨애틀 한인침례교회 담임목사 정하경 KOREAN BAPTIST CHURCH 1306 N. 165th St. Seattle.WA 98133 542-4391 예배시간 : 오후 1시
한인 제일감리교회 담임목사 이창수 425 N.E. 95th. Seattle.WA 98115 367~2178 예배시간: 오후 1시	씨애틀 성은교회 담임목사 성운경 4401 2nd Ave N.E. Seattle. WA 98105 예배시간: 주일오후 1시
한국 벤틀 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영규 BETHEL PRESBYTERIAN CHURCH OF KOREAN 예배시간 오후 1시 546~5214 19358 3rd Ave N.W. Seattle.WA 98177	씨애틀 제일장로교회 11508 Rooseveltway N. E. Seattle.WA 98125 대예배 오전 11시 오후 7시 365-5333 364-5394

교회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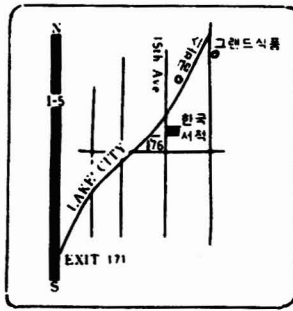
씨애틀 한인연합 감리교회 담임목사 김중원 ■ 주일예배 오전 11시 ■ 교회학교 오전 10시 ■ 중고등부예배 오전 10시30분 ■ 금요일예배 오후 7시30분 ☎226-7864, 632-5163 7시30 1415 NE 43St. Seattle (워싱턴 대학 옆)	한인 연합 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영희 ◆ 주일예배 오후 1시 전도사 이석복 ◆ 주일학교 오후 1시 ◆ 한글학교 오후 12시30분 1315 N 160th St Seattle 전화 교회 367-5858 집 774-1885
웨더럴 웨이 에덴장로교회 주일대예배: 오후 1시. 삼일기도회: 오후 7시 주일학교 오후 1시 매일새벽: 오전 5시반 941-9684 839-6744 김성권 목사, 1829 S 308th St. Federalway 임규영 전도사	렌튼 한인 교회 담임목사 김경원 ●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 각구역예배: 금요일 오후 7시 전화: 226-2703 교회위치: : 3031 NE 10th St Renton
씨애틀 한인 형제교회 ● 주일대예배: 오후 1시 ● 주일저녁찬양예배: 7시 ● 수요일기도회: 7시반 담임목사 최용걸 7th & Spring(시애틀 다운타운) 365-6691 367-0183	타코마 한인 침례교회 담임목사 문창선 주일: 성경공부 9시반, 낮예배 11시, 밤예배 7시 수요일기도회 오후 7시, 토요일새벽기도 오전 6시 5602 112th St. SW Tacoma 581-3144, 582-1829
성복음 성결교회 담임목사 윤한두 14537 30th Ave N.E. Seattle WA 98115 예배안내 오후 1시 367-1490	한인 복음교회 담임목사 이영준 811 5th Columbia St Seattle WA 98101 예배안내 오전 11시 363-6789
타코마 한인 중앙교회 담임목사 정남식 • 주일예배 1부: 10시, 2부: 11시반 • 저녁예배: 7시반 • 주일새벽기도회: 6시 • 주일학교: 11시반 • 한글학교: 주일 10시 • 삼일기도회: 7시반 • 영어교실: 화, 목 오후 6시반 9시반 3010 S. 66th, 472-9463, 475-4709(목사관)	한인 선교교회 담임목사 송천호 515 So 312 st Federal Way WA 98003 예배안내 1부오전 9시 30분 2부오후 12시 30분 838-4599 922-1611
씨애틀 한인안식일 교회 안식일 대예배(토) 안교 9시반, 설교 11시 성경연구회(화) 오후 7시반, 담임목사 유재상 금요일저녁예배 오후 7시반 부목사 김준팔 300 W Saar St Kent 854-1125, 8490	순복음 씨애틀 교회 담임목사 박성수 1632 Broad way Ave P.O. Box 20305 Seattle WA. 98102 예배시간 오후 1시 30분 546-1612
씨애틀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구 2728 N.E. 100th St Seattle WA. 98125 예배시간 1부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 367-4561 523-2728	씨애틀 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최태원 1215 Thomas st Seattle WA. 98109 예배시간 오후 1시 242-0315
서부 영생 교회 담임목사 한상국 9252-16th Ave S-W Seattle WA. 98106 예배시간 주일 아침 11시 주·수저녁 7시 금요일기도회 8시 목사관 767-0693	와싱턴 중앙교회 담임목사 유의선 601-9th Ave. S-E Puyallup. WA. 98371 예배시간 주일 1시 30분 수요일 7시 30분 철야기도회 매월마지막 금요일 10시 교회 927-4105 목사관 941-8170
씨애틀 중앙 장로교회 담임목사 정연발 9421 18th Ave. S. W. Seattle WA. 98106 예배시간 오후 1시 763-8952	에베렛 한인교회 담임목사 고필균 EVERETT OF KOREAN CHURCH 1St Casino RD. EVERETT . WA 98204 353~4143 예배시간 오후 1시 30분

한국서적

Korean Book Store

취급품목

- ◎ 소설·잡지·종교서적·음악·미술·취미서적·월간지·주간지·무협지·만화(대여 및 판매)
- ◎ 한국TV 비디오 테이프 대여 및 판매 (연속극·영화·단막극·쇼·코메디 등)
- ◎ 카세트·8트랙·레코드판
- ◎ 장식용 액자·성화·족자·교회용품·선물용품 등.



※비디오 테이프 회원 모집중
(1년 회원권)

524-2544(씨애틀)
584-8292(타코마)

8016 15th Ave. N.E. Seattle, WA

씨애틀지역에 한국의 각종 서적과, 한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TV연속극 영화·단막극·쇼 등 비디오 테이프를 구비하고, 고객 여러분을 모시고저 하오니 일차 왕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SECURITIES BLDG., SUITE 635
1904 THIRD AVENUE
SEATTLE, WA 98101



EAST-WEST TRAVEL SERVICE

IATA-ATC 공인

동서여행사



(206) 623-2157) 낮
623-2158) 밤
367-1935 밤

영업안내

- * 국내 및 국제 항공권 판매
- * 국내외 관광안내
- * 항공권 월부판매 알선
- * 각종 여행 수속 무료 서비스
- * 이민수속 및 가족초청 서류작성 무료 서비스
- * 시민권 취득신청 서류작성 무료 서비스
- * 공증업무 무료 서비스
- * 국내 및 국제 항공권을 가정으로 전해드립니다.

서북항공(NWA) 및 대한항공(KAL) 대리점



대표 이영호

『회의 진행법에 관하여』

“긴급동의”



한만섭

지난호에는 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회의진행법(Robert's Rules of Order) 중 13 가지 동의를 우선순위를 얻게 하였다. 이번호에는 그 동의를 사용 또는 처리법을 설명할 차에인데 이에 앞서 우선 사회자(의장)나 회원(회의 참석자)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부터 먼저 설명하기로 한다. 사회자는 회의순서를 다음과 같은 순위로 진행한다.

1. 개회선언 (Call to order)
2. 회의록 낭독 및 통과 (Reading and Approval of minutes)
3. 각 부서장 보고 (Officer's Reports)
4. 위원회 보고 (Committee Reports)
5. 미결 안건 처리 (Unfinished Business)
6. 새 안건 처리 (New Business)
7. 특별안건 (Special Business)
8. 광고 (announcement)
9. 휴회 또는 정회 (Recess / Adjourn)

상기 제 2항은 서기가 지난번 회의록을 낭독한후 경정이나 삽입이 필요하면 이를 고치고 반드시 한 회원의 회의록통과는 요청하는 동의와 다른 회원의 제창을 얻어 표결로 통과하는 것이 정석이다. 제 5항은 지난번 회의록중에 기재되어있는 미결안건을 이번회의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제 6항은 사회자나 회원이 새로 결의해야 할 안건을 제시 설명한 후 새 안건에 대하여 한 회원이 정식동의를 하고 의결을 거쳐 결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사회자는 각 회원에게 찬성, 반대의 의견을 고대도 발표하도록 발언권을 주어야 하며, 받아하지 못한 회원이 있는 한 같은 회원에게 두 번 발언권을 주지 않도록 한다. 사회자는 마치 운동경기의 심판처럼 중립적 입장에서 서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로버트 회의법은 사회자 자신이 동의를 하거나 찬반 동의에 참가하는 것은 삼가도록 되어있다.

제 9항은 휴회 또는 산회인데 이것은 사회자가 마음대로 할수 없고 회원의 산회동의와 제창을 거쳐 표결로 결정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자가 「회의가 없으면 산회합니다」 하고 의사를 명백히 하면 회의가 폐회된다. 이때 한 회원의 항의가 있으면 표결로 결쳐서야만 폐회 할수 있다.

동의를 처리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한 회원이 일어서거나 손을들어 발언할 의사를 표시한다.
2. 사회자는 그 회원에게 발언권을 준다.
3. 그 회원은 성명확된 동의를 제출한다.
4. 다른 회원이 제창을 한다.
5. 사회자는 그 동의를 전 회원에게 낭독한다.
6. 전 회원이 그 동의에 대한 찬성 반대 동의에 참여한다.
7. 사회자가 표결을 실시한다.
8. 투표결과를 공포한다.

제 1항과 2항은 손조로운 회의진행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명확하면 반드시 이행해야 할 행동이다. 제 4항은 동의에 대한 제창인데, 이 제창이 있어야 동의를 성립시킨다. 제창이 없으면 동의를 그대로 죽여버린다. 제창은 찬반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수 있다. 동의에 반대하는 자도 제창을 불러 동의를 들고 동의할수 있다. 동의한 회원도 동의후 부표로 던져도 무관하다.

그러면 이제 지난호에 열거한 13가지 동의를 종속동의(Subsidiary motions)를 처리하는 법을 설명하기로 하자 종속동의를 다시 적으면

- (6) 의결을 실시 제쳐놓는 동의 (Lay on the Table)
- (7) 표결을 요구하는 동의 (Previous Questions)

- (8) 회의 종결을 요구하는 동의
- (9) 정 한시간까지 연기를 요구하는 동의
- (10) 의결을 요구하는 동의
- (11) 개의를 요구하는 동의
- (12) 무기연기를 요구하는 동의

이상 7가지 종속동의를 주동의(제(13)항에 해당)이 있은후 성립되고 제 6항이 제일 상위이고 제 12항이 제일 하위이다. 예를 들면 한 회원이 「주동이든 우선 보류하자」고 동의하면 제 6항이 다른동의보다 상위이기 때문에 사회자는 즉시 표결을 물어야 한다. 제(6), (7), (8)항은 동의를 할수없이 표결만 하면된다. 제(9)항부터(12)항까지는 동의를 할수 있다.

제 6항의 필요성은 한 안건 동의결의를 임시 제쳐놓아야 할 경우에 생긴다. 한동의가 동의되고 있는 한 이 동의를 미결동의(Pending motion)이라 하고, 이 미결동의가 현안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한 다른 동의를 할수 없다. 따라서 긴급한 안건이 있으면 제(6)항 동의를 이용해서 미결안건은 보류한 후에야 다른 동의를 할수 있다.

제(6)항 동의를 표결에서 부결되면 미결안건을 계속 논의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흔히 「긴급동의」 하는 소리를 회의중에 듣는데 만약 그 긴급동의의 내용이 현안 미결 안건을 임시제쳐놓고 「긴급동의」의 내용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면 그것은 제(6)항 동의를 결쳐서 처리되어야 한다. 제(7)항은 동의를 그만두고 표결을 하는 동의인데 이것은 회원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동의이기 때문에 회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통과 된다. 이 7항은 회원의 발언권은 가장 존중한다는 정신에 오는 것이다. 제 8항은 「발언권은 제한하자」 또는 「발언권은 몇사람, 몇시까지 제한하자」는 동의인데 이것도 발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통과된다. 제(8)항은 개의할수 있다.

(* 표가 붙은 항은 모두 개의할수 있는 동의이다). 제(9)항은 회의결의 다음회의나 또는 나중에 정한 시간까지 연기하는 동의이다. 제(10)항은 복잡한 안건이거나, 더 필요한 정보가 있어야 처리할수 있는 안건을 한 위원회를 설정하여 그 위원회도 하여금 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제하는 동의이다. 제(12)항은 찬반을 대결로 직접결정하는 것을 피하는 것은 목적으로 하는 동의이다. 예를 들면 어떤 회장에 찬성이 많은 회원이 「우리 회장의 봉급을 배로올립시다」라고 동의하면 이 동의를 찬성하지 않는 회원이 그 동의에 대하여 부표를 던지는 대신 「이동의에 대한 결의를 무기 연기합니다」라고 동의하면 이동의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표결을 거쳐 무기연기의 가부도 결정한다. 이동의가 가결되는 경우에는 회장봉급을 배로 올리자는 동의를 간접적으로 부결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후에 재고할수 있는 기회 가 되어 상방의 면목을 살릴수 있는 편리한 점도 있다.

제(11)항인 개의에 대한 설명은 길므로 다음호까지 연기하기로 하고 또 지난호에 열거한 특권적 동의 (Privileged motions), 그리고 「긴급 동의」라고 해설할수 있는 우발적 (또는 부수적) 동의를 (Incidental motions)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하기로 한다.

필자 : 보잉회사 공기역학 기사

(보잉 767 설계부 근무)

주 시애틀 총영사관으로부터의 공고

제 목 : 83년도 국외수학 특수전문요원 선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학원 졸업생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아태와 같이 해외에서 수학한 특수 전문요원을 선발한다 하니 해당자는 많이 응시하기를 바란다함.

아 래

1. 응시일자 : 83년 7월 7일 (월) 16:00
2. 응시장소 : 주 시애틀 총영사관
3. 응시자격 : 외국의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얻은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30세 미만 인자 (수료 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이 확정된 자 포함)
4. 선발방법 : 면접 및 서류전형
 - 가. 배점비율 : 서류전형 70%, 면접 30%
 - 1) 서류전형 : 대학원 (학위 또는 자격수여 기관) 전과정의 성적
 - 2) 면접시험
- 나. 선발위원 : 총영사관에 선발위원회 설치하며 동위원회에서 면접,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정함.
5. 인원제한 : 없음
6. 구비서류 (원서마감 : 83년 3월 4일 (금) 까지)
 - 가. 응시원서 (영사관 보관용) 1부
 - 나. 사진 (5cm X 5cm) 1매
 - 다. 학사학위증 사본 1부 (단, 수료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이 확정된 자는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 라. 대학원 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7. 예매 : 선발된 자는 병역법 제 3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66조의 3 제 4항에 의거, 6개월간 장교 또는 준사관교육을 마친후 병역복무를 필한것으로 보게되며 다른 조건은 없음.

(83년도는 83년 7월 - 8월경부터 6개월간 상고교육을 실시한다하며, 외국인과, 소집기간동안 추후 국방부 (병무청)에서 합격자에게 별도 통보함것임).

K.P. 번역원

<연방법원·이민국 인가>

- 서류·책자 고급번역/작성
- 법정·이민국·각기관통역
- 이민·법률문제 해결보조
- 유능한 전문번역사 선정
- 각종 상담

K.P. Translation Services
1600 N.E. 47th St. #18
Seattle, WA 98105
대표 : 박 건 흥
(206) 527-8094

조병규 치과

시애틀

원. 화, 목, 토
(9시~6시)
367-5570/776-8512

페더럴웨이

수, 금(10시~7시)
838-3180(시애틀)
927-4996(타코마)

생의 값어치

김 동 진 목사 (타코마 한인루터교회)

이기에 복이되고 남아버린 보기도 또한 아연이더러가 있다
고 생각하십시오. 그 아연이 언마람의 값어치가 나가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가령 약 2분 정도의 것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 값어치에 나가지 않겠느냐
고 의문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
만 그 값어치에 나가지도 못할것입니다.

물론 그 이상으로 값어치 나갈수도 있습니다. 가령 아연을 가
지고 만물을 만드는데 2분 정도의 2조개의 아연이 아마 10분 정도
의 값어치에 나가지도 못할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이 평평
한 아연조각이 만물로 씌어짐에 따라 5배 이상의 값어치가 나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아연의 값어치가 나
가지 못할때는 바늘을 만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러한들의 생각은 그럼 그때가서는 아연의 값어치가 어떻게
될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아연으로 만든 바늘을 판게되면
또 그때가서는 어느 정도의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2분 정도의 아연으로 된 바늘이지만 3,250원 정도의 돈을 받고 판
아 버릴수도 있을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연의 값어치는 못할때는 바늘도 바피어질때 2분에서 3,250
원으로 상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250원 그 이상으로
는 아연의 값어치가 더 나팔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도는 그 이상으로 더 나팔수도 있다고 생
각합니다. 이제 그 아연을 가지고 시계제작용으로 사용한다고 가
정 하십시오. 시계 제작은 손목시계 내부에는 작은 부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감히 아연을 가지고 손목시
계의 예열로 사용했는지 아닌지를 아연의 값어치로 아연의 값어
치만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해 내지 못할것입니다. 모든것 하지만 그 정도의 사
고 목까지 아연의 값어치를 따진다면 아연의 가치는 더욱 더 값
이 나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보관되지 않는 더러운 2분의
아연을 가지고 시계 제작을 만든 후 그 시계가 20만불이 되는 시계
라고 한다면 누구나 믿으려고 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렇지 않
을까요? 그러나 단 2분에 해당하는 아연으로 20만불에 해당하는 시
계가 되었다는 것은 믿을수 없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언연한 사실
입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용된 물품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아연을 우리 인간의 경우에서 있어서도 취
용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씩은 생
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 인간생활에 보탬이 될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어떠한 제능이든간에 제
능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제능이 무엇입니까? 또 그
제능을 가지고 어디에다 사용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창조해 주시
고 제능까지 부여해 주신 하나님은 그 제능을 어디에 사용할것인
지에 대해서도 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가끔 이런 반
영의 말을 느낍니다. 즉 부자인수록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
한 사람일수록 더욱 가난해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한
국의 경우 이것이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해습니
까? 정부에게 그 책임이 있을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도 가난에서 그에게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차분 차분하게 보
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주신 제능을 가장 중요로 취급하게 사용하
고 있는지 아닌지 만입니다. 혹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
각할까 하는 것이 우리의 제능을 숨겨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25:28절에 있는 말씀,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는 가진 사람에게 주었다"

주님의 이러한 말씀은 너무도 당연한 평범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
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무슨 제능이든지 이것을 활용만하면
성경하고 편이관수가 있지 만 소홀히 하면 잃혀지고 나중에는 죽어
없어지고 만다. 그것은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다 적용이 되
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능을 충분히 활
용치 않을때 모든 제능은 사라져 버리거나 죽어 없어져 버리는 것입
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제능이 제능이 자기 제능을 현명하게 사용하
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서 십 달란트는 가진 자에게 그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제능을 주신 하나님을 의뢰 봉사하는 일에 내 제능
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제능을 도둑이 따돌려 버리고 노획
하고 있거나 잃어버린 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소외 심어하자는 이
만하는 열등의식에 대해서도 관망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22절 - 25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이여 나는 주님께서 부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데서 모으는 부서는 반말을 안고 두 마리에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파우 두었나이다."

이런 일이야 말로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찾아볼수 있는 일입니다.
혹 어떤자가 되는 것이 우리로서, 사람들이 무시하여, 아니면 비
난이 무시하여 그리고 후구적책이 문제가 되어, 이런것 때문에 우리
가 제대로 제 능력을 다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열등자로서의 난인이 될수밖에 없습니
다. 이러한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정신적인 이와같은 열등에 때
해 어떤 처벌을 가지고 있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주저로 정복하
신 능력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같은 벌을 주시기를 원하
고 계십니까. 먼저 그는 우리에게 자기를 믿고 그리고 끝까지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들 스스로가 믿고 의
지하며 살아가는 이런것까지도 원하고 계십니다. 또 그는 주님
의 도용을 얻어서라도 제능을 발견하여 그것을 계속해 나아가 하
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활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무런 제능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할수 있는 사람
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들중에 그 누구도 자기 제능을
완전히 이룰 정도로 충분히 활용해 보았다고 생각할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결실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은 무엇보다 많은 심묵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한 성경의 역사들 통해서 배울수 있는 한가지 사실
은 이러한 개인에 대해 하나님이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들은 가난이 있을것이 아니라 하
나님의 의의있고 값있는 일에 있어서 목적에서 행동해 오기야 되
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제능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제능이 많으니 만큼 나만은 세상일을 돌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나
님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 한가지 제능을 가진 사람
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를 활용하고 계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것
입니다. 우리는, "나는 무엇에도 진공한것이 없는 놈이다"이
런 생각을 말아야 할것입니다. 이러한이야말로 다른사람이 중
년 할수없는 그런 무엇이든 공헌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마음과 정신과 육체를 지닌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은 2분 정도의 값어치에 이르는 것은 하
나니까? 아니면 20만불의 값어치를 지니고 있을수까? 이 문제는 하
나님이 이러한에게 맡겨 주신 제능을 이 하위 사용하는데 달려있
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의 제능이 어떤것이든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28절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제능
이 보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제능을 가지고 그라도를 위해서
또한 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현
명하게 우리의 제능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제능을 취하
는 의 결과도 같이 반꾸에게 해 줄것이기 때문입니다.

『생활정보』

인컴택스 작성요령

1970년도 초 나는 동부 모회사에 초급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다. 그때 나와 비슷한 동배의 한 직원과 친숙하였는데, 그는 경리담당 직원이었고 나와 이웃을 함께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초봄 익근길 그는 나와 함께 귀가중 나에게 양해를 구하고는 INCOME TAX SERVICE 라고 쓴 간판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한참만에 나온 그는 INCOME TAX SERVICE는 이곳에서 잘한다고 알려 주었다. 나는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회사의 경리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가 자신의 TAX보고서 정도야 정말 눈감고 써낼수 있을텐데... 하고 나는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쁜 자만의 생각이고 미국사람의 대부분이 어떤 TAX SERVICE OFFICE를 이용한다는 걸 알았다.

이 사람이 택스 보고서를 못작성해서 아니고 자신이 직접 작성해보고 그것을 확인하기 1/3할이라는 걸 알았다. 따라서 6주 내지 12주 걸리는 기간을 기다림없이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사람을 보면 택스관계를 손도 안대고 남에게 맡기는 것을 보았다. 또는 전자의것은 자기가 직접 작성해보고 확인하는 것이고 후자는 전연 만능보도 못하고 남에게 맡기는 차이 점이 있다. 여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한편씩을 작성해볼 필요가 있어 이 지상을 통하여 알려주도록 한다. 택스보고서는 한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해 보고하여야 하기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 먼저 어떤 경우 지면의 관계도 있고 하니 자기사업을 하는 본의 보고서가 아니고, 두 부부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를 생각해본다. 예를들어 통 공동 통 같은 두 부부는 이민은 지 5년째 되는 해인데 직장도 무사히 잡다니고 구 부부가 GROSS INCOME 이 공쳐서 38,500불 이마아자 집은 2년전에 사고, 아이들은 두남매가 있다. 또는 통같은의 전경노모가 작년부터 같이 산다. 이런 집안의 경우, 무조건 세금보고서 양식은 1040을 선택한다. 이것이 전 미국가정의 세금보고서 작성의 기본 양식이다. 이 양식들은 은행, 우체국 공공 도서관 등에 매년 초부터 4월15일까지 비치해 둔다.

이런 경우 준비 서류들은

- 1) W-2 (다니는 직장에서 내어주는 세금지급 확인서) W-2G, W-2P 등이 있다.
- 2) 집 mortgage 지불된 1년간 보고서
- 3) 각종 은행및 보험금 별도 지불확인서
- 4) 각종 자산단체 회사금및 고액, 만인회 회사금 지불확인서 의 서류를 준비한 다음, 먼저 1040 뒷부분 본인들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를 두부부다 함께 기재한다.

그다음 대통령 선거비용으로 경시연금을 1불씩 지불하겠느냐고 묻는란에 "YES" "예" "X" 한다. (이는 본인들 세금계산엔 관계 없다.) 다음 칸은 가족관계로 통 공동은 2번에 X도 마크한다. 1년부터 5년까지인데 안근에만 해야한다.

- 6번은 본인들의 부양가족에대한 공제 부분인데 6a 와 B에 X표를 하고 C 에 아이들 이름을 쓰고 D 에 통같은의 노모 이름과 관계, 지난해 몇개월 동거했는지 (12개월도함) 또 안 수입이 있었느냐도 생활비 부담 여부를 물었다.
- 7번은 두부부의 총수입을 GROSS INCOME W-2 에 기재대로 기록한다.

- 8년부터 21년까지는 B 들 수입
- 23번 부터 31년까지는 수입의 조정을 1/3한 공제항목인데 특히 IRA (개인 정년 퇴직금)을 지불했으면 이 역시 공제 받는다. (25년)
- 32번은 조정된 총수입의 금액을 다음 페이지 33번으로 넘어가는 총 수입금액이다. 이 통 공동 부부의 경우 은행이자 수입도 없고 다른 저축금액도 없으며 다만 IRA \$1500 했으면 전자의 \$38500에서 \$1500을 뺀 \$37000이 세금을 내야할 조정된 총수입이다.
- 다음 34(a)이 항목이 다소 중요하다. 이는 1040양식을 보충하기 위하여 별도로 보충 명세서가 붙는다. 이양식은 SCHEDULE A & B 라고 하며 폼 (FORM 1040)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집에 지불된 MORTGAGE 이자및 저축된 세금거부가 상세히 기록된다. 이 면에 1-10 까지 한해동안 저축된 의로비, 저과및 안경 보정기등 보관 관계에 저축된 사항을 열거한것인데 모두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참고로 82년도 의로 공제액은 본 1040양식의 33번에 기재된 총수입의 3%가 넘는 금액부터 공제 받는다. 즉 통서 부부의 33번 총액은 \$37000이니 3%는 \$1110인데 82년도에 저축된 보전관계 경비가 \$1110 이상이면 작성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 공제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기재할수가 없다. 그런경우 0으로 표시하자. 또한 참고로 83년도 부터는 3%에서 5%로 인상된다고 하니 어지간한 저축과고는 공제받기가 힘들다. 즉 건강했으면 그만큼 돈을 저축한 셈이다.

- 11년부터 15년까지 82년도 저축된 모든 택스 관계인데 11번 State Tax 는 억상해주는 것으로 그냥두고,
- 12번 자기집부동산 저당세는 기재하고 통서 부부 경우 \$860 을 지불했으니 12번은 860인데 이숫자는 통서가 mail 도 받은 mortgage 및 세금 지불 명세서에 나와 있다.
- 다음 13번은 물건을 샀을때 낸 택스인데 이는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시애틀의 경우 통서 부부는 최고 \$540공제 받으니 Edmonds, Lynnwood의 경우 \$499을 공제받는다. 이자로는 매년 주 정부국에서 재조정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또한 실제로 자기가 저축된 모든 영수증을 다 모아 계산해서 이것에 저축된 택스를 기재할수도 있다. 이 경우 물론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일반 통계 자료에 따르는 것이 좋다.
- 13(b)는 그해에 새차등을 샀을 경우 저축된 Sales Tax 를 기재한다.
- 14번은 기타종목에 괄목할만 금액의 Tax도 지불된 것인데 매년 차양행중을 받음받을때 저축된 EXCISE (초차세) TAX 금액을 조목별로 열거하여 기재한다.
- 16(a)는 집 mortgage 회사의 이자 저축 금액이고 (b)의 경우는 개인대 개인의 계약으로 모계지 설정을 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통 공동 부부 경우 mortgage loan 회사에 지불된 16(a)에 \$8400이 기재 된다.
- 17번과 18번은 아인 또는 은행등에 저축된 일반 이자금액인데 이 역시 내용이 기재되고 영수증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 20(a)는 고액도 비영리 단체에 저축된 헌금 또는 기부금

총액을 기재하는데 총액수가 \$3000이 넘으면 20번에 (b)에 기재하고 그 내역을 기술해야한다. 통서부부 경우 만인심택고회에 작년 총 헌금액이 \$1500도 고회에서 택스 보고용 영수증도 받았다. 그러면 20번 (a) 에 그 액수를 기재한다.

- 다음 24-26번까지는 기아손실투인한 저축된 금액인데 즉 강도및 겁에 도난, 권문의 따지 별 별 을 기재한다. 또한 직업과 연관된 회비, 소금액의 장비등으로 저축된 금액도 \$300 이내에서 기재할수 있다. 이렇게 하여 거의 작성된 Schedule A 는 28번에 총액이 기재되고 통서부부니 경우 10번 의로 공제는 0이며, 15번 택스는 \$1390이며, 19번 mortgage 이자가 \$8400이고, 23번의 고액헌금 \$1500이니 28번의 총합계는 \$11290이다. 여기서 29번의 \$3400감산하면 \$7890 이 나온다. 이것을 30번에 기재한다. 본 1040양식의 34(a)안에 기재한다. 29번의 내용은 먼저 1040의 전년 1년부터 5년 사이에 어느곳에 마크했느냐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된다.

그때서 33번의 총액수동 34(a)를 감산하면 \$37000에서 \$7890을 공제한다. 따라서 \$29110이 되며 또한 36번에 전식구당 \$1000씩 금액이 35번은 \$5000이 된다. 그러면 \$29110에서 \$5000감산하여 37번에 \$24110이된다. 이는 모든 공제들 다 열거한 마지막 남은 세금을 내어야할 금액이다.

- 38번은 1040안에 책자 뒷면에 세금환산표가 나온다. 여기서 \$24110에 대한 통서 경우 내어야할 세금은 \$3918이다. 이 금액이 40번에 기재 되며 택스 계산은 사실상 끝난셈이다. 이 \$3918이 50번과 59번에 각각 기재되며 60번에 실지 저축된 택스와 비교해 본다. 이는 먼저 말한 직장에서 받은 W-2 에 저축된 세금과 비교하는 셈이다. 이 경우 \$5050이미 세금으로 저축했으므로 59번에 Refunded to you 에 0표를 하고 59번과 67번의 차액을 68번에 기재한다. 즉 \$1132을 돌려받는 셈이다. 여기서 한가지 생각하고 넘어갈것은 고액나 각종 사기관에 저축된 금액이 세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생각해 보자. 통서 경우 고액에 \$1500을 헌금하지 않았으면 내어야할 세금은 \$4334이 된다. 따라서 그 차액이 \$416이 된다. 이러한 경우 \$416을 더 돌려 받는 셈이다. 작성된 1040양식물에 반듯이 두 부부가 서명해야 하며, 남자를 기록하고 발송한다. 보내기 전 한뼘를 다시 숫자 계산을 정확히 해보고 또한 사본 하나씩을 보관해둔다. W-2 form 만 1040와 SCHEDULE "A" 함께 보내며 모든 영수증과 증빙서류는 본인이 보관한다.

이러한 일을 처음 해보면 다소 차이의 실수가 있다고 해도 세무국에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정정되어 처리해 준다. 그러면 다음 해부터는 거의다 자신있게 해낼수 있으리라 본다. 필자는 이러한 지면의 소개가 다소 설명과 숫자의 혼돈을 가할까 염려하여 다음 기획에 좀더 폭넓은 방향으로 설명할 기획이 있기를 바란다.

『알 림』

『제 1 회 춘기 테니스 대회』

일시 : 1983년 3월 26일 토요일
 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장소 : Seattle Tennis Center
 실외 경기장
 2000 Empire Way S. Seattle
 종목 : A. B. C. 여자 단식 복식
 참가비 : 일반 8불, 학생 5불
 복식 참가시 5불 추가
 상 : 1, 2, 3 위 까지 Trophy 증정
 의 장며상
 연락 : 이 계획 (488-8868)
 장 예근 (248-3371)
 용 경선 (789-7272)

억상한주 한인 테니스 협회 회장 이 계획

『알 림』

(컴퓨터 주소록)

한인회에서는 금년도의 한 사업계획으로 상세하고도 정확한 주소록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본 주소록 준비는 시애틀지역에 위치한 한인교회들의 1982년도 고인명단과 1982년도 시애틀시 전학번호부를 중심으로 편찬을 해왔는데 현재 약 2000개 가까운 정확한 주소가 수록되어 있으며 한인회 임원과 목회자들의 후원을 받아, 보다더 정확한 주소록을 작성하고자 현재 여머자료들 수집중에 있습니다.

최근 현대식품 (대표 조 진기씨)로부터 제공받은 약 4000개의 한인주소록을 포함하면 보다 정확한 주소록이 될것 믿으며 이 주소록에는 시애틀지역의 한인기관과 각종업체를 총망라해서 수록할 예정이며, 광고물도 대대적으로 실며, 한인들의 광복말만한 활동상을 지역사회에 알리고자 합니다.

새 주소록에 광고를 내시고 싶으신분이나, 주소록편찬에 참가가 될 정보를 가진분, 혹은 현재까지 준비된 주소록이 필요하신분은 한인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Bulk mail(계 3종 우편물) 우송에 사용하기 쉽게 Zip code 순으로 작성된 mailing label 도 공급해 드릴수 있습니다.





**Seattle-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February 19, 1983

Mr. Leroy M. Hittle
Chairman
Washington State Liquor Control Board
1025 E. Union ES-31
Olympia, Washington 98504

Dear Mr. Hittle:

This letter is to register our strong protest against the enactment of Law WAC 314-12-125, requiring English language capability during business operation hours. Throughout history, no nation, particularly, the United States, has ever stipulated a language requirement for the right to establish a legitimate business enterprise. This country stands for a free enterprise economic system where anyone can establish a business based on supply and demand. Customers also can freely choose patronage of any store based on their free will. It is very discriminatory to only grant the right to operate a business based on English language capability or ethnic origin for that matter. This country stands for the right of life for all racial groups, irrespective of language background. Therefore, the law is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The intent of the law notwithstanding, certain laws are enacted to protect certain groups. For example, the 1917 Alien Land Law of the State of California resulted in a strong discriminatory course of action against Asians in general and the Japanese in particular. We feel this law which you are about to enact will result in a similar misfortune to certain racial or ethnic groups. To prevent business opportunities based on language goes against the true principle of freedom which this country represents. It is not only directed against certain minority groups but it is a discrimination in law that will result in serious consequences.

The influx of foreign immigration into the United States is a part of American history. Despite difficulties, new immigrants invested in business and succeeded. This presence made our country what it is today. There are some oriental immigrants, because of their language problems who cannot find employment. Thus they invest their family fortune in a business venture with a great deal of caution and fear. They are hard working people, trying to compensate for their language handicap with an extra smile or kindness to their customers. Above all they pay taxes, support the American economic system and do not seek handouts or government welfare. Instead of recognizing their industriousness and indefatigable effort to become accepted in the business world, to discriminate against them by enactment of such a law, we feel, is most unfortunate and unjust. Therefore, we strongly urge you to take the necessary steps to prevent such a law from becoming a reality.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in this matter.

Sincerely,


Paull H. Shin
President

cc: Vivian Luna, Executive Director, Commission on Asian American Affairs
Ralph Munro, Secretary of State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 Phone (206) 682-4252

**Dr. Paull Shin Files Community's
Strong Protest against Liquor
Control Board's English Language
Capability Requirement**

Last month, the Washington State Liquor Control Board proposed adoption of a new law, which may eventually put out of business the liquor store owners who are non-native speakers of English. The proposed law requires that "a licensee must have on the licensed premises at all times when liquor is being sold at least one person employed who is able to read, and converse with customers and law enforcement personnel in the English language." The new rule also states that "failure to provide the English language capability ... will constitute good and sufficient cause for revocation of license privileges."

This means that under the new law any liquor store owner who is not a native speaker of English has a chance of his license cancelled

whenever the Liquor Control Board decides that his or her English is not good enough. To avoid this risk of license cancellation, then, a Korean liquor store owner, for instance, will have to hire an American for full time. This is practically impossible because a small family-run liquor store cannot afford to hire a full-time American employee and still make enough profit to keep the business going.

In short, the new law is designed to keep non-native speakers of English out of liquor sales business. It is a bad law because it not only discriminates against minority businessmen but also violates the principle of "free enterprise," upon which America's economy is built.

For these reasons, Paull Shin filed strong opposition with the Liquor Control Board, protesting against the adoption of the proposed law. Shin's letter of protest is printed in full on the following page.

청도식당
TSING TAO

◎순 한국식 중화요리전문
◎수타국수, 칵테일완비

영업시간

화-목 : 12:00 - 10:00PM
금-토 : 12:00 - 11:00PM
일 : 1:00PM - 10:00PM
월 : 휴일

전화 367-9339

13744 AURORA AVE N.
SEATTLE, WA

이영주 치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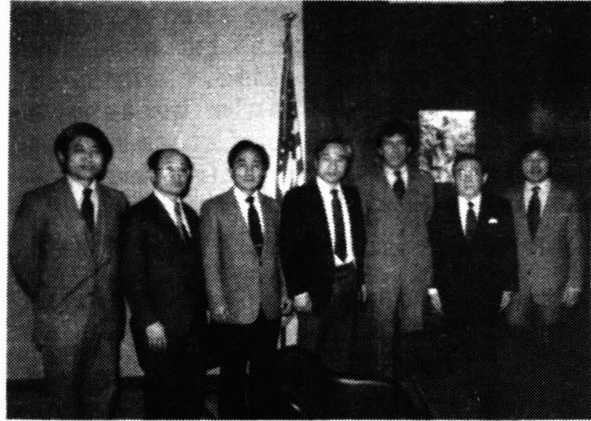
타코마 지역 581-1412

진료일시 : 화, 목, 토(아침9시~6시)
진료장소 : Sun Plaza Suite #10
10209 Bridgeport Way SW
Tacoma, WA 98499

시애틀 지역 775-3456

진료일시 : 월, 금(아침9시~6시)
수(낮12시~저녁9시)
진료장소 : Stevens Dental Center
20728 - 76th Ave W.
Edmonds, 98020

City Hall Visi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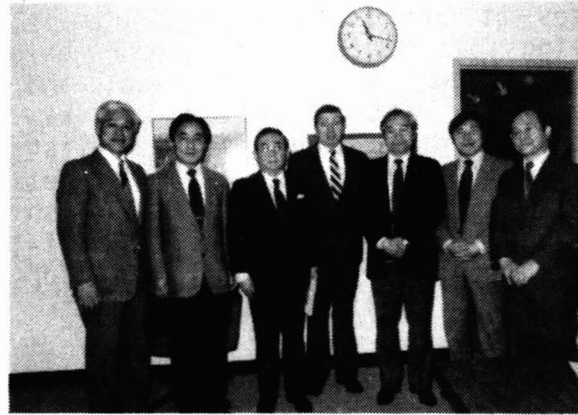
On February 8, the officers of the Korean Association made a courtesy call to Mayor Charles Royer, and Chief Patrick Fitzimmons of the Seattle Police Department. Representing the Association were Dr. Dan T. Lee,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Dr. Paull Shin, president, Mr. Hyun Jin Lee, public relation, Mr. Yong Nam Kim, public services, and Mr. Hyun K. Lee, advisor. Consul General Moon Soo Lee represented the Korean Government.

Mayor Royer also to Announce April 23 Korea Day for Seattle

Warmly received by the mayor, the Association representatives exchanged opinions on such wide ranging topics as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and social opportunities for the Korean-American communities in the City of Seattle. Stressing his open door policy, Mayor Royer expressed his willingness to develop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community. In line with Governor Spellman's decision, Mayor Royer too will declare April 23 Korea Day for the entire city. Royer also said that he was looking forward to his up-

coming visit to Korea, particularly the Port of Pusan, Seattle's sister city.

Grateful to the Association's interest in participating in the Sea Fair festival and parade in an effort to develop a more international atmosphere, Royer accepted the invitation to attend the April 23 Korean Day celebration.



Chief Fitzimmons Needs Korean Speaking Police Officers

The meeting with Chief Fitzimmons of the Seattle Police Department was a productive one for both communities. Following the greetings and a briefing given by Paull Shin on the Korean community in general, Fitzimmons expressed his interest and concern over the increasing number of Asians in Seattle and the problems related to their growing demand for services. Expressing the need for Korean speaking police officers and civil servants, Fitzimmons asked for recommendations for candidates to be considered. Because of their needs, the chief assured that special consideration will be given to Korean applicants. Handing several copies of Home and Street Safety to the visitors, a brochure printed by the Seattle Police Department Crime Prevention Division, Chief Fitzimmons requested that the information be shared with the Korean community.

Korean Association: A Brief Look at its History

The Korean Association was first established in 1967. The late Mr. Chang Hei Lee, a teacher and engineer who e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in 1929, was the first president. At that time, there were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Korean-Americans in the area, and the Association began its function as a friendship and fellowship organization. Unlike the Chinese and Japanese who e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since mid-nineteenth century, the influx of Koreans did not take place until recently, particularly during the early 1970's, when President Johnson liberalized immigration quotas from the Pacific Rim countries. As the Korean population here increased, the Association has also grown accordingly. Consequently, the Association has become more of a service organization to provide counselling and assistance in education, social services, legal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The officers implementing these services include the president, two vice-presidents, and twelve cabinet members as well as six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president and the board of directors are elected at the annual general meeting for one year terms.

Prayer Meeting Launches 1983 Activities

The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representing approximately 25,000 Korean Americans in the greater Seattle area and Washington State, has launched this year's activities with a Breakfast Prayer Meeting on January 22, 1983 at the Sea-Tac Holiday Inn. Clergy from local Korean community churches and leaders from various social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of about 150 people were invited to pray for peace in the world, peace and harmony within the United States and peace and well-being for Korean-Americans in the State of Washington. On January 29, 1983, the Association also hosted an open house to introduce their new offi-

cers and its new office at Lake City School, 2612 125th, Seattle. Over 100 Korean-Americans and American friends interested in the Association were in attendance to meet the new officers for the year 1983.

Activity Plans for 1983

This year's activities, according to Dr. Paull H. Shin, president, range from extensive public relations activities to promote better relations between the American and Korean communities to numerous service projects and counselling programs for new immigrants to promote self-help initiatives during this economically difficult time. The public relations activities include visits with the Governor, Secretary of State, Mayor of Seattle, and mayors of adjoining areas as well as visits to Boeing, Lockheed, Todd Shipyard, and various educational institutions.

Plans are under way for the Korea Day celebration on April 23, 1983. Governor Spellman, Mayor Royer, the Korean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and many other officials from both American and Korean communities are expected to be present there. Also being planned are the Korea community's participation in the Sea Fair 1983 and the International Fair.

Service projects for the Korean community include counselling on matters related to legal, family, immigration, educational, social, and employment difficulties. Emphasis will be on maximizing the ability to be self-sufficient within the community.

Special activities for the community include such functions as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celebration, establishment of a Korean school to teach American born children how to speak and understand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 summer sports fair, celebration of the August 15 Independence Day, Christmas Party, and various seminars to help Koreans better adjust to their newly adopted country.

Does Language Really Matter?

Being a Korean-American who can't speak Korean poses several problems. The Korean who was born and raised in America and even those who came to this country and forgot their native language are often frowned upon because of their inability to communicate in Korean.

Though it is not difficult to learn the Korean alphabet and the various sentence structures, it is difficult to speak it properly and with ease.

Often, second generation Koreans do not find the need to learn the Korean language mainly because they don't find the opportunities to speak it; parents may speak another language to them or perhaps some may simply find it more convenient to speak English.

Many traditionally-minded Koreans sense that the younger generation is gradually losing that intimate bond with the Korean culture which their parents try to maintain. The quick ability of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to assimilate into the American society and the urge for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to be accepted by their American counterparts most readily contribute to the noticeable decline in their Korean speaking ability and detachment from the Korean culture.

While it may be true that many American-born Koreans are satisfied with integrating solely with Americans, there are those American-born Koreans expressing a sincere interest in understanding their Korean background better and becoming involved in various Korean related activities. For example, certain American-born Koreans unveil a special affinity towards the Korean



By Elizabeth Lee

culture by supporting their activities both financially and morally, taking classes to learn about Korean history, arts, and dance, or simply by talking to their friends and relatives about Korea and her traditions. Some (like myself) may even venture too the faraway homeland to get a first hand experience of the culture.

Still, it is not enough that only some are involved. All second generation Koreans ne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ir culture and have a caring attitude over Korean matters. It must be understood that the lack of ability to speak one's native language should not deter an individual from accepting one's heri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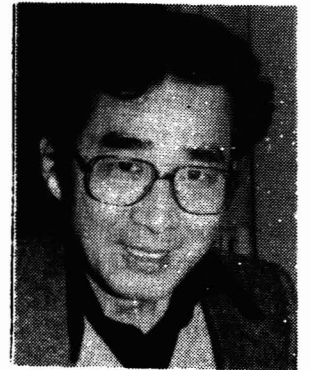
Undoubtedly, it would be beneficial if one acquired knowledge of their native language, but a more important factor is having that genuine desire to find out more about one's heritage and associate with one's fellow country people.

Koreans are Koreans no matter where they live or what language they speak. It may be difficult for some of the second generation Koreans to ever speak or even understand our mother language, but this needs to be acknowledged. To have an open heart and the willingness to accept the Korean culture is what really matters. We should be proud to be Koreans no matter what language barriers exist.

I know I am proud to be a Korean-American.

To Young Koreans: an Old Man's Apology

By Daeshik Yu



Tradition is a way of life which is handed down to us from our parents who had inherited it from their parents, and it goes on back to our ancestors. But tradition is also something that every generation participates in creating, not totally anew, yet changing it in a way that would enrich our thoughts and feelings, and thus help us live our only life on this planet as decent human beings. Tradition can be an important guide for us because it contains the truth and wisdom which had been tested against our parents' experience in the past. In accepting traditional values, however, every generation owes it to itself to select and modify them so that the values each generation upholds would be intellectually and emotionally satisfying.

Some values like love, brotherhood of mankind, equality, and democracy are so difficult to embody into our lives that they remain as goals yet to be achieved. The extent of one generation's contributions toward achieving these goals is the degree of respect and appreciation it deserves from its next generation. The problem is that these important values come down to us often enwrapped with the errors of the past generations. In weighing and judging the traditional values we inherit, the only tools or yardstick available to us are our Reason and Senses.

Does the value we inherit from our parents satisfy our intellectual demands? Does it enrich our emotional needs as civilized people?

These are the questions to be answered when we test our heritage against our own experience.

In examining our inherited values, then, the most important thing is not to be cheated by our habit of thinking too highly of ourselves, which seems to be part of our tradition. It is true in my case, at least, and this is the error I have made in bringing up my children. So, my apology goes first to my children, and then, I hope, by extension, to our younger generation who carry the seeds of hope for our race within them.

When my children started school in America, I drilled into their young minds that they should be proud of being Koreans because Korea is a country with so many thousand years of history. Our superb heritage is unique. As descendants of the "white robed" race whose noble spirit was nurtured in the land of morning glory, our blood is thicker than water. Our family ties hold us together in harmonious unity. The Great King Sejong invented the Korean Alphabet which works better than English. The Koryo Dynasty porcelain is world-famous for its elegance and beauty, so on and so forth. Therefore, I insisted to my children that they should cherish their heritage and preserve it with their chins kept up high. They took these ideas to their "show and tell" time, and their classmates envied them about almost everything they had to say about Korea. I encouraged them that as private cultural diplomats, they were doing an excellent job for our fatherland.

Then, one evening while having dinner, the TV newscaster reported on the Kwangjoo massacre of students. Within a matter of minutes, all the beautiful illusions my children had for their country were shattered to pieces. Horror-struck at the sight of long lines of pine-wood coffins with a few flowers mournfully placed on each, a student kneeling on his knees in the middle of the street with his hands tied behind and being kicked and battered on the back by the rifle-butt of a fully armed soldier, a whole bunch of students with their hands tied behind and all roped to a line and being dragged to somewhere--and many more scenes of unspeakable cruelty turned our evening into a nightmare.

When my children turned their tear-filled eyes on me, they didn't have to say a word. All the weight of their accusations pierced through my heart like the shock of lightning. In the vacuous hall of my paralyzed mind, the thundering roar of their anger became repeated cries of "liar, coward, betrayer," which kept ringing in my ears for countless times. In the accusing looks of my children, I saw the curse of our young generation directed at my generation. Since then my children stopped asking me about Korea; I didn't blame them. How could I? How could anyone in his right mind justify what our generation has done to our younger generation?

"If you are unable to do anything about this terrible crime of your generation," I told myself, "the least you could do is admit and apologize for what you have done." The example I have cited is just one of the several errors which the old generations made collectively as a race. Although it is uncomfortable to talk about our errors, past or present, and although "tradition" forbids us to touch on its flaws because it hurts, we cannot get a clear sense of direction and purpose for our future path unless we know what went wrong in the past. You

cannot work out a solution unless you know what the problems are. The modern history of Korea shows us the nature of the problems we are encountering.

Our monarchy was abolished, not by the reform spirits of our grandparents, but by the force of Japanese Empire which made Korea part of their country at the turn of the century. Our past generations covered up their weakness and powerlessness that had allowed this to happen simply by directing our attention to the injustice of the Japanese aggression. It might be emotionally gratifying to blame it all on the invaders who barbarously kept Korea under their occupation for 36 years. But blaming others does not justify or explain the incompetence of our past generations. We did not liberate ourselves from the iron grip of Japanization movement that severed our language from our tongues and choked the throat of our culture until it nearly died. Our liberation in 1945 was a by-product of the Allies' victory in World War II. And it is the stupidity of our fathers who got themselves tangled in the ideological warfare of the so-called superpowers that divided our country into two halves. And the blindness of our generation is now joining forces with the stupidity of our fathers to perpetuate that division.

No American nor any Russian would let you come in and put up an eternal wall in the middle of his house and order him to stay separated forever from his brothers and sisters. There is no such thing as half an independence just as no human being can lead half a life. Adam Smith did not write his Wealth of the Nation with the welfare of Koreans in his mind, nor did Karl Marx write his Das Kapital with Koreans in the back of his consciousness. And yet blinded by these illusions called -isms and doggishly loyal to superpowers who divided our country simply for their convenience, my generation is butchering

our own sons and daughters for raising their voice against our blindness, and with the guns that are supposed to protect them.

The stupidity of our grandparents had turned us into the slaves of the Japanese Empire for nearly half a century. Now my generation is joining forces with the stupidity of our fathers to turn ourselves into the slaves of two superpowers.

This is the main current of the Korean heritage, which my generation, because of its folly and moral cowardice, is about to leave you, my dear young generation of Koreans. I do not ask for your forgiveness; for such enormous crimes as we have committed, there can be no forgiveness. I merely ask you to be strong and

learn to survive among the packs of wolves waiting to snatch at the carrion when we are victimized. The current scene is much like a jungle in which natural selection and the survival of the fittest are the rules of social advance and material gain. Our task is to elevate this animal state of society to a civilized state, where the raw power of the fist and mechanical forces are made to serve the interests of all Koreans. I hope your reason and senses will select and modify what you inherit from my generation, and turn it into a heritage which truly satisfies your heart and your mind. All the "good" things about home, country and religion which we, the old generation, tell you are subject to your intellectual and emotional scrutiny, however well-intentioned they may be.

리스 서비스 센터

- 각종 가정용 및 사업용 냉동기, 냉장고, 세탁기, 오븐 및 전기용품 일괄수리.
- 용접(전기, 산소)
- Wood Stove 제작 및 수리
- Maintenance Contract 24시간 서비스

Mark W. Lee
이용호

771-5728

4104-219th S.W.

Mountlake Terrace, WA 98043

스튜디오 꽃집
THE FLOWER STUDIO



- 결혼 약혼식꽃
- 실내용 화초
- 각종 축하용 화분
- 장례식 꽃등



— 교포에게 특별봉사 —

전화만 주시면 즉시 배달해 드립니다

4222 EAST MADISON SEATTLE, WA 98112

☎ BUS 325 5032 RES:367 1534

『한국의 밤』에 동포 여러분을 한자리에 초대합니다

1983년 4월 23일 워싱턴주 지사와 씨애틀 시장의 한국의 날 선포와 때를 같이 하여 저희 워싱턴주 씨애틀 한인회에서는 미국정부·사회요로 인사들을 대거 초빙하여 고민 여러분들과 함께 아래와 같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밤 행사를 개최코자 합니다.

이 지역에서 날로 성장해 가는 우리 한인교포 사회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고민들간의 상호친목과 단결심을 함양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이 행사에 고민들을 모두 모시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이 모임을 빛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일 시 : 1983년 4월 24일 (토) 오후 6시 30분 부러
장 소 : Seattle Trade Center (씨애틀 트레이드 센터)
2601 Elliot
Seattle, Washington

행사내용 : 1부 사고 시간 (카레일), 만찬
 주요 초청인사 소개 및 강연
 2부 고전음악, 무용, 농악, 민요, 해군도
 등 문학 예술.
 3부 댄스 파티

입장료 : 1인당 \$15.00

기타 한국의 밤 행사에 대한 문의는 한인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983년 3월 5일
워싱턴주 씨애틀 한인회
회 장 신 호 범

한인회보

표지의 『한인회보』 제자 :

한인사회를 위하여 헌신, 사랑, 겸양,
술선수범으로 귀감이 되었던 고 이창희
초대 한인회장의 생존시 휘호

『편집후기』

- 회보를 전면활자화 하려했던 계획은 한글 식자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직은 이루어 질수없는 꿈인것같다. 식자사정이 자유로워질때까지 기다리면서, 이번호는 전면타자로 꾸며보았다. 타자하느라고 수고해준 한인회사 무실직원 권양에게 감사드린다.
- 좋은글을 보내주신 여러분의 덕택으로 이번호의 품위가 높아진 기분을느낀다. 2세들의 한글교육문제에 대한 이익환씨의 폭넓은 분석은, 주제는 다르지만 2세에게 모국의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현실과 양심사이의 날카로운 모순을 느끼게하는 유대식씨의글(영문)은 무엇인가 우리자신을 다시한번 되돌아보게 해주는것같다 최계순 옹의 한인사회에대한 백서도 우리를 반성해보게 하는 글이라고 느껴진다.
- 2세청소년들이 한인사회를 보면서 느끼는 소감올적은 글들을 앞으로 많이 권장하고싶다. Elizabeth Lee의 글에격려를 보내며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자극제가 되기를 바란다.
- 지난호 내용중 잘못된데를 지적해주신 독자들께 사과드린다

한인회보 1983년 제2호
발행인: 신 호 범
편집인: 박 건 흥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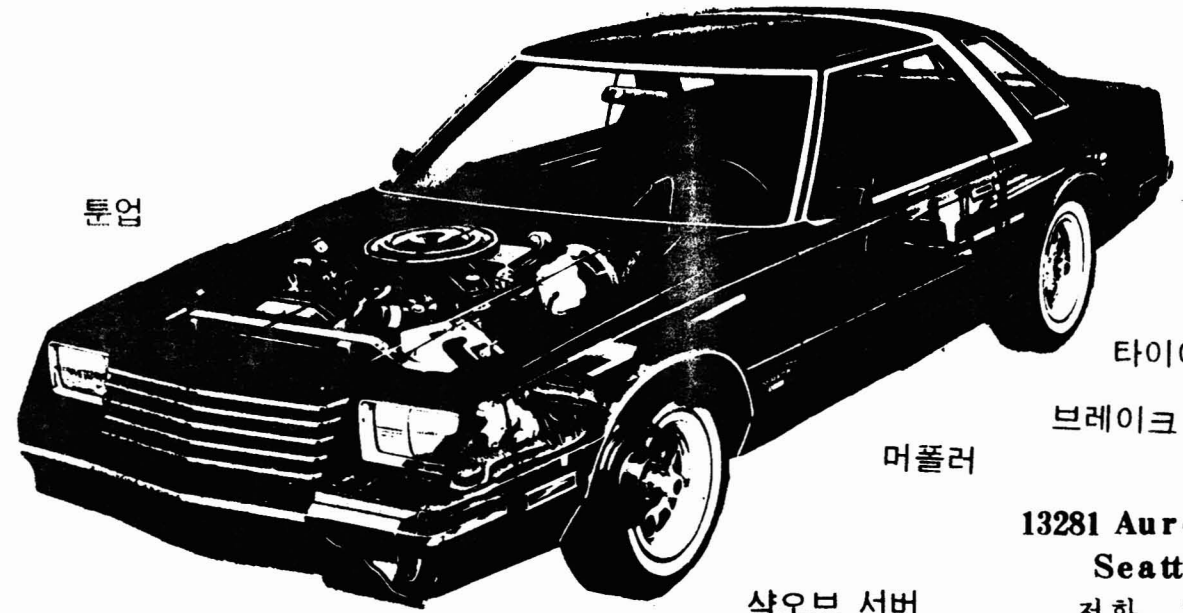
2611-125th Street Street N. E.
SEATTLE, WA 98125

P. O. BOX 24992
SEATTLE, WA 98124

TEL: (206) 362-4500

이 규 영 계 리 사
귀중한 재산을
소중히 정리해드립니다.
※ 컴퓨터로 장부정리 ※ 퇴직 연금 상담
※ 일반 인컴 택스 ※ 세무상담
※ 중소 기업 장부정리 ※ 공증업무
※ 기밀 절대보장
623-4181-3
2809 4th Ave. Seattle

LEE'S 타이어 및 자동차 종합 정비센터



투업

타이어

브레이크

머플러

13281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전화 362 ~ 4449

삭오브 서버

프론트 엔드얼라인 먼트

트랜스 밧송

모두 완벽하게 고칩니다

싼값으로 비디오를 사고 싼값으로 한국비디오 영화를 볼수있는
킹 TV - VIDEO

해빙
 성난눈동자 꽃가마 확인 달동네 달무리
 서궁마마 꽃바람 장희빈 은장도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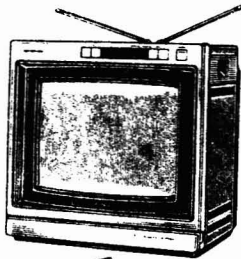


장마
 형제
 봉선의하늘 시집가는날 유미의일기 아내

공주감부 김갑순 아들이 내아들이
 공주며느리

친구야친구 막차로운 손님들
 역마

어머니나를 낳으시고
 전설의고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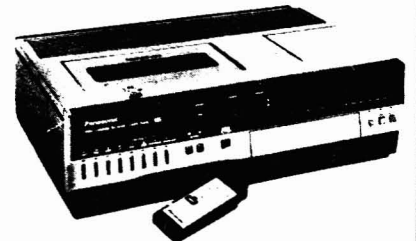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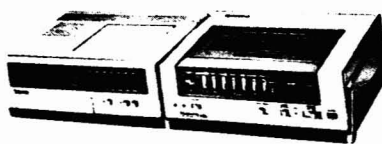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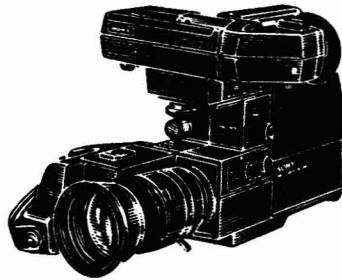


풍운
 못잊어
 소망
 을화
 세자매
 춘향전
 유례기

(많은 한국비디오 (영화) 테이프가
 도착되어있습니다)

매주우편배달하여드립니다

- 모든 지성인과 클래식 음악 애호가 들에게
- ① 고국산천을 배경으로 엮어지는, 한국내 유명 테너. 쏘프라노 가수로서 총망라한 일대 한국가곡 영창의 파노라마
 - ② 음향과 영상을 동시에 비디오 화면을 통하여 감상할수있는 획기적시대 도래함.



KINGst. TV & VIDEO

단연코 싼값으로 살수있는 SONY 와 PANASONIC 제품은
 우와지마야 맞은편

624-9815 624-9844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 98124

HAN, MAN SOP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

01019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